

국통 73-6-60

世界各國의 政治教育 現況分析

1973. 6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6.

研究機關：延世大學校文理科大學
研究責任者： 李 奎 浩

目 次

I. 緒 章	1
1. 研究의 目的	1
2. 研究의 内容	2
3. 研究의 方法	4
4. 研究의 制限点	5
II. 教育의 社会的 機能과 政治教育	7
1. 教育의 社会的 機能	7
2. 教育政策의 社会的 課題	10
3. 社会變遷과 政治教育	13
4. 政治教育의 社会的 機能	16
5. 政治教育의 意義와 限界	19
III. 社会意識을 위한 政治教育	23
1. 啓蒙과 이데오르기 批判	23
2. 社会意識의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	27
3. 政治教育和 價值判断의 問題	32
4. 政治教育에서의 現實과 理想	37
IV. 人間의 社会化와 政治教育	40
1. 第1次 社会化의 過程	40
2. 第2次 社会化의 過程	52

V. 各國의 政治教育	59
1. 西 獨	59
2. 노르웨이	60
3. 스웨덴	61
4. 덴마크	62
5. 스위스	63
6. 英 國	65
7. 포르투갈	66
8. 荷 蘭	67
9. 더 키	67
10. 中 共	71
11. 소 련	76
12. 自由中國	77
VI. 結 論	81
1. 各國의 政治教育 傾向	81
2. 提 言	85

I . 序 章

政治教育의 重要性은 그것이 한 나라의 政治体制를 安定시켜주고 發展시켜 주는 原動力이 된다는 데에 있다. 民主, 共產 陣營을 막론하고 政治教育은 여러가지 形態로 強調되고 있다. 共產主義와 對峙하고 있는 韓國과 같은 分斷國은 特히 政治教育이 重要한 役割을 하게 된다. 本研究는 世界 各國에서 實施되는 政治教育의 內容과 形態를 把握하여 우리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示唆點을 發見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이 章에서는 本研究의 目的, 內容, 方法, 制限點에 對하여 仔細히 記述한다.

1. 研究의 目的

本研究의 目的은 東西 兩陣營을 包含한 世界 主要 國家들의 政治教育現況을 把握하여 우리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原理를 發見 하는데 있다.

政治教育의 現況을 把握하는 것은 實際로 各國 政治教育의 目的, 內容, 方法, 體制, 形態, 強調點 等を 分析하는 일을 包含한다. 그리고 東西 兩陣營을 包含하여 把握하는 것은 共產主義國家와 民主主義 國家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政治教育의 差異點을 發見하기 위한 것이다. 共產主義와 對峙하고 있는 韓國과 같은 分斷國의 政治教育의 分析은 本研究의 目的에 비추어 特히 重要視된다.

世界 各國의 政治教育 現況을 分析하는 것 以外도 本研究는 또 하나의 重要한 目的을 갖는다. 이것은 政治教育의 意味와 重要性, 機能, 一般教育과의 關係, 過程 等を 理論的으로 밝혀 보는 것이다.

本研究는 政治教育의 意味, 機能, 過程에 對하여 理論的으로 먼저 究明하고, 世界 各國의 政治教育 現況을 分析하여 이를 土台로 우리의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提案點을 發見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本研究의 目的을 仔細히 記述하면 다음과 같다.

1) 政治教育의 究明

- ① 政治教育의 意義 探索
- ② 政治教育의 機能 究明
- ③ 政治教育의 過程 分析

2) 世界 各國 政治教育의 實態分析

- ① 各國의 政治教育, 目的, 內容, 方法, 分析
- ② 各國 政治教育의 體制, 形態, 強調內容 等の 分析

3) 우리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提案點 發見

2. 研究의 內容

本研究는 政治教育의 機能과 意味를 밝히기 위하여 教育과 社會와의 關係를 分析한다. 社會와 教育과의 關係가 가장 直接的이고 關聯이 깊은 것이 政治教育이다. 教育이 社會의 維持와 發展을 위

해 어떤 機能을 發揮하고 있으며, 社會는 教育을 위해 어떠한 機能을 하고 있는가의 分析은 政治教育의 機能과 意味를 究明하는 지름길 이다.

教育和 社會와의 關係 分析은 本研究의 重要한 內容으로 包含된다.

政治教育을 通하여 人間이 政治的으로 社會化 되는 過程의 分析은 本研究에 包含되는 또 하나의 內容이다. 人間の 社會化 過程에 對한 分析은 政治教育이 어떤 內容과 方法으로 遂行되어야 하는가에 對한 깊은 洞察을 준다.

政治的 社會問題를 어떻게 教育속에 끌어드려야 하며 끌어드린 問題를 通하여 어떻게 政治的으로 社會화된 人間을 形成할 것인가는 政治教育이 깊이 洞察해야 할 問題이다.

本研究는 이와 같은 內容의 分析도 包含하여 政治教育을 理論的으로 究明하여 본다.

各國의 政治教育을 把握하기 위하여는 民主主義를 採択하고 있는 主要 國家들과 共產主義를 採択하고 있는 主要 國家들을 研究 對象으로 包含시킨다. 특히 우리나라와 關聯이 깊거나 類似한 形便에 있거나, 影響力이 큰 國家들은 반드시 分析 對象으로 한다.

그리고 各國 政治教育의 制度, 體系, 一般教育과의 關係, 目的, 內容, 方法, 形態 등은 本研究의 主要한 分析 內容이 된다.

以上과 같은 內容의 分析을 通하여 本研究는 結論을 抽出하고 이를 土台로 必要한 提議點을 發見 한다.

3. 研究의 方法

本 研究는 理論 分析과 實際 分析이 併行 된다. 理論分析은 各其의 主張을 文獻 分析을 通하여 綜合하고 體系化 한다. 實際의 分析은 現地에 나아가서 資料를 蒐集하고 分析하여 把握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다. 그러나 現地에 나아가서 調査하는 方法은 時間과 經費 問題로 거의 不可能하다. 따라서 政治教育에 對한 各國의 實際分析은 各國으로 부터 蒐集한 資料를 根拠로 大体的인 內容을 把握하고 各國에 關聯이 깊은 專門家의 意見이나 諮問을 通하여 補充한다.

政治教育의 理論的인 究明은 比較法이 主로 採用된다. 最近 定立된 理論들을 모아 比較하고 政治教育의 意味와 機能, 過程 等에 對하여 一般的으로 主張이 一致하는 方向으로 結論을 얻는다.

勿論 이러한 政治教育에 對한 理論은 共產主義 國家들에 있어서의 立場을 原則적으로 考慮하지 않는다.

다만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 政治教育을 보는 立場은 各國 政治教育의 實態를 把握하는 데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各國의 政治教育 實態는 民主主義 및 共產主義 國家를 包含하여 主要 國家들의 政治教育을 個別的으로 把握한다. 個別的인 把握은 政治教育의 體制, 形態, 一般教育과의 關係, 目的, 內容, 方法, 強調點 等の 두드러진 特徵을 分析한다.

個別的으로 各國의 政治教育이 把握되면, 各國의 두드러진 特徵과 傾向이 比較된다. 比較를 通하여 얻어진 結果를 土臺로 우리 政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提案點을 간추린다.

4. 研究의 制限點

世界 各國이 政治教育을 重要視하고 있는 것은 一般的인 傾向이나 重要視 하는 까닭은 各國의 事情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強調하는 內容과 形態도 多様하다. 따라서 政治教育의 意味, 機能, 過程 等を 한마디로 規定하는 것은 相當히 어렵다.

우리 나라와 같은 特別한 여건하에서의 政治教育은 先進外國의 그것과는 相當히 對照되는 點이 많다.

直接的으로 共產主義의 威脅하에 分斷되어 있는 나라로서 統一을 위한 努力을 進行하고 있는 우리 與件에 先進國의 政治教育 模型이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다.

政治教育의 意味, 機能, 過程 等이 理論적으로 究明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相當한 程度의 現實條件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알맞게 具體化 하여야 한다. 이러한 點에서 理論적으로 究明된 政治教育에 대한 本 研究의 結論은 우리나라에 適用함에 있어서 制限點을 갖는다.

共產主義 및 民主主義를 包含한 主要國家들의 政治教育의 實態를 分析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우리나라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原則을 提供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떠한 나라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政治的 問題들이 가로 놓여 있는 特殊 여건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點에서 우리나라의 政治教育은 世界的인 傾向을 그대로 追從할 수 없는 事情이 있다.

따라서 世界 各國의 政治教育의 傾向이나 特徵이 分析되었다 하

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特殊한 事情을 充分히 考慮할 수 있는 限界内에서 應用 되어야 한다. 本研究의 制限點은 우리나라 政治教育 改善 보다는 世界 政治教育의 實態 그 自体를 把握하는데 더 많은 關心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具體的인 提案을 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本研究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制限點은 分析 對象이 된 資料들이 解氷期 以前의 것이 大部分이었기 때문에 解氷期 以後의 傾向 把握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 本研究 結果가 一般化되고 解釋되어야 한다.

II. 教育의 社會的 機能과 政治教育

1. 教育의 社會的 機能

教育은 자라나는 世代로 하여금 그 社會안에서 生活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社會的인 機能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歷史的인 價值體系와 특수한 條件들과 특수한 課業들을 지니고 있는 現存하는 具體的인 社會안에서 生活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教育의 機能이라는 것이다.

國家와 社會에 의해서 組織的으로 설정된 教育體系는 따라서 社會的인 機能을 가졌다. 그러므로 모든 教育作業과 모든 教育機關들은 언제나 社會的으로 制約된다. 教育이 어떤 社會的인 課業을 부여받았는지 教育의 目標가 무엇인지 教育이 어떤 社會的인 條件들 아래 놓여있는지 어떤 關心들이 教育에 쏟아지며 어떤 規制를 教育이 받는지 이런 문제들은 다만 그 社會의 具體的인 狀況 社會經濟的인 條件과 支配體制와 權力構造와의 關聯아래서만 理解될 수 있다. 한 社會의 教育體系는 그 社會에서 支配的인 價值體系 規範體系 行動模型 그리고 上下秩序와 威信을 위한 社會的인 尺度 뿐만 아니라 生活方式과 그 社會의 理念등을 반영한다. 다시 말하던 教育과 教育體系는 그 社會의 支配的인 觀念들과 이데오로기들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한 社會의 支配的인 階層들과 集團들이 그들의 秩序觀念들을 통해서 教育內容과 教育理念을 決定한다는 것이다.

教育体制과 그 組織 그 内容과 方法등은 社会的으로 제약되고 따라서 社会的 機能일뿐만 아니라 또한 教育体制은 그 社会体制의 保存과 安定을 위한 制度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라나는 世代로 하여금 特定한 具体的인 社会안에서 生活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그 特定한 社会構造에 適應만 시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 特定한 社会構造를 批判하고 새로운 与件들에 따라서 改革하고 이를 통해서 發露시키는 것도 함께 意味한다. 그러므로 教育과 教育体系를 社会的으로 制約된 社会的 機能이라고 하는 命題는 一方的으로만 理解되어서는 안된다.

教育은 社会를 통해서 制約되지만 또한 教育은 社会에 대해서 作用한다.

教育体制은 支配構造를 포함한 現存社会 秩序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또한 教育은 社会秩序를 再創造한다. 그러므로 教育体制의 組織과 教育의 内容과 教育의 方法은 더 進歩的일 수도 있고 더 保守的일 수도 있지만 教育과 教育体系 自体는 根本的으로는 現存하는 社会体制의 基本構造와 다를수가 없다. 教育과 教育政策은 原則的으로 언제나 現存하는 社会的 需要와 課業을 指向한다. 社会構造의 變化는 곧 教育体制에 반영되고 教育体制의 變化를 가져온다.

反對로 教育体制의 變化가 社会構造의 變化를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것은 教育体制가 社会的인 變化를 촉진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否認하는 것은 아니다.

넓은 意味에서 자라나는 兒童들을 社会化시킨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特定한 社会를 위해서 필요한 知識들과 能力들을 習得

하게 하고 同時에 그 社會에서 支配的인 道德的 政治的 審美的 規範들과 社會的인 行動模型들을 받아들리고 內面化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的인 規範들과 行動模型들의 傳達은 그 社會의 文化遺産의 傳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다시 그 社會의 現存하는 體制의 維持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라나는 兒童들을 社會化시킨다는 것은 特定한 具體的인 社會에 同化시킨다는 意味를 가졌다. 社會的인 規範들과 行動模型들의 體系는 文化的인 傳統에 根拠하기 때문에 社會化하는 것은 于先 第一次的으로는 保守的인 性格을 가졌다. 그러므로 社會化는 첫째로는 現存하는 社會構造의 保存과 正當化에 이바지 한다.

社會化의 理念에 根拠한 教育目標들은 그 社會에서의 普遍的인 觀念들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라나는 兒童들을 社會化시킨다는 것은 文化的인 價値와 社會的인 體制를 保存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支配體制와 權力構造의 具體的인 形式들 上下秩序와 所有關係의 形式들을 確固하게 하는데 이바지 하기도 한다. 人間은 社會化의 過程에서 文化的 價値와 社會的인 規範들을 合理的으로 批判하지 아니하고 無意識的으로 內面化시켜서 習得하기 때문에 現存하는 社會體制를 維持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社會의 文化的 傳統속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合理的인 批判精神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러한 批判精神이 涵養되면 無意識的으로 받아들려진 價値들과 規範들과 不可侵의 教條들에 根拠한 政治的 支配體制는 合理的인 社會構造를 통해서 止揚되게 된다.

文化的 傳統속에 담겨있는 合理的 批判精神도 社會化의 過程에서

자라나는 兒童에게 전달되고 習得되기 때문에 社會化라는 것이 반드시 保守的인 機能만 가진 것은 아니다. 만약 人間이 出生하면서 부터 人間인 것이 아니고 社會化의 과정을 거치면서 人間이 되는 것이라면 敎育이란 일정한 文化的인 전통과 일정한 支配構造를 가진 社會의 機能이다.

2. 敎育政策의 社會的 課題

敎育의 社會的인 機能에 따라서 敎育政策은 敎育體制를 그 質과 量과 組織과 內容에 있어서 그 社會의 要請에 적응시키는 機能을 가졌다. 이러한 必要性은 첫째로는 勿論 經濟的인 技術的인 發展으로 因해서 나타난 것이지만 둘째로는 存立하는 社會秩序를 그 支配構造와 權力關係와 더불어 保存하고 굳히는 課業으로 因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敎育政策은 相當히 먼 未來에 效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未來의 社會發展과 여러가지 社會的인 條件들을 미리 測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經濟的인 發展과 社會的인 變化가 미리 認識되어서 敎育計劃과 敎育政策에 반영되어야 敎育의 機能이 그 社會의 未來의 要請에 應할 수가 있게 된다.

한 社會의 經濟와 技術의 發展은 決코 資本投資와 工學의 發展에만 依存하는 것이 아니고 人間의 勞働力의 質에 더 많이 依存한다. 發展된 産業國家들에서 經濟의 發展可能性을 決定하고 制限하는 要因은 무엇보다도 勞働力의 質的인 構造이다. 産業化의 初

期段階에서는 經濟發展이라는 것은 주로 投資할 수 있는 資本의 문제였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주로 人力的 質과 教育의 문제가 되었다. 새로운 技術的인 發展과 科學的인 研究의 成果들이 生産에 이바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生産에 參與하는 勞動力이 그만한 水準으로 教育되어 있어야 한다. 經濟的인 生産의 높은 成長率이나 높은 作業水準은 다만 勞動力의 質의 不斷한 改善이 技術的 發展과 步調를 맞추게 될때만 實現될 수 있다. 勞動力의 質이 낮으면 그것은 經濟發展을 制限하는 要因이 되는데 이러한 制限性은 生産에의 많은 資本投資를 통해서 部分的으로만 克服될 수 있다.

社會的으로 要請되는 勞動力의 質的인 構造의 改善과 變化는 다만 勞動하는 人間들의 知識들과 能力들을 向上시키고 改善함으로써만 可能하다. 이것은 곧 勞動力의 質的 構造가 教育体制의 質과 量의 문제에 依存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科學的, 技術的 發展은 이에 따르는 教育体制의 不斷한 質的인 量的인 改善을 요청한다. 그리고 또한 科學的 技術的 發展은 教育의 內容과 質을 계속해서 經濟發展에 적응시킬 것을 要請한다. 만약 社會가 이러한 要請을 無視하고 이러한 적응을 소홀히 하면 結局 教育体制의 非效率化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것은 國家發展의 가장 큰 沮害要因이 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生産이 增大되어가는 産業化 技術化 科學化에 따라서 社會生活의 向上과 國家發展은 거의 全的으로 더 많은 人間들의 素質을 더 많이 開發하는데 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教育은 現代에 있어

서는 가장 重要하고 가장 長期的이고 가장 生産的인 投資領域이 되었다.

教育政策은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經濟的인 技術的인 要請에 따라서 勞動力의 質的인 構造를 改善해야 하는 課題와 더불어 이에 못지 않게 重要한 또 하나의 課題를 가졌다. 그것은 한 社會의 教育體制 안에서 그 社會體制에 相應하는 人間像을 자라나는 世代에 있어서 길러낼 수 있는 思想的이고 理念的이고 組織的인 前提들을 마련하는 課題이다.

곧 자라나는 兒童들의 바람직한 社會化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兒童들을 그 社會의 規範體系안으로 引導하고 그 社會體制에 合當한 行動方式과 意識構造를 만들어 냄으로서 存立하는 社會秩序와 存立하는 社會的 文化的 傳統을 보존하는 그러한 責任을 教育政策은 가졌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처럼 存立하는 社會體制가 밖으로부터 혹은 안으로부터 威脅을 받고 있는 社會에서는 教育政策의 이러한 課題는 그 社會體制의 死活의 문제와 直結된다.

모든 社會의 教育目標은 언제나 그 社會의 發展이 志向하는 社會像과 그러한 社會의 實現에 이바지 할 수 있는 人間像을 함께 내 포함한다. 그런데 이러한 教育理念과 社會理念과 人間理解는 그 社會에서 支配的인 社會意識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政治的인 安定이 持續的으로 유지되고 社會構造가 重要하지 않는 그러한 時代에 있어서는 陶冶의 理想과 같은 教育理念이 아무런 異議없이 普遍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그러한 理念을 正當化하는 社會構造가 存続하고 支配體制가 도전받지 않는限 自明한것 처럼 받아들

러졌다. 그러나 社会構造가 變化하고 여러 社会的인 階層들 사이에 對立葛藤이 격심해지면서 주어진 素質들을 調和롭게 기른다는 陶冶의 理念과 같은 教育理念은 그 普遍的인 妥當性을 잃게 되었다.

社会構造의 歷史的인 變遷과 더불어 특수한 支配的인 社会階層들의 興亡과 더불어 教育理念도 變化해 왔다. 政治的인 支配를 위한 鬭爭 社会構造의 形成을 위한 鬭爭에 있어서 學校敎育도 排除되지는 않았다. 언제나 여러 社会集團들이 敎育體制나 影響을 미칠려고 試圖했는데 이러한 試圖들은 언제나 教育理念에 반영되었다.

3. 社会變遷과 政治敎育

技術的인 經濟的인 發展은 이미 말한바와 같이 勞働力의 質的인 量的인 改善을 요청하는데 이것은 必然的으로 敎育體制를 그 모든 組織과 機關에 있어서 擴大하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든다. 發展된 産業社会에서는 技術發展과 經濟成長의 停止를 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敎育體制를 不斷히 새로운 要請들에 副應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未來의 敎育體制는 어떤 固定的인 形式의 形態나 組織일 수 없고 다만 不斷한 改革일 것이다. 社会的인 經濟的인 發展에 의해서 強要된 敎育體制의 變遷은 敎育의 社会的인 位置와 社会的인 意義를 크게 變化시켰다. 모든 人間들의 素質들을 社会階層의 差異없이 最大限으로 開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技術的인 經濟的인 發展에 의한 要請때문에 이러한 要請에 副應하는 새로운 敎育體制는 어떤 특수한 社会階層만의 利益을 반영할 수는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教育体制은 모든 國民의 知性化와 教育의 民主化를 가져 오게 되었다. 人的資源을 最大限 開發하기 위해서 下流階層의 子女들에게도 더 改善된 教育을 받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民主化의 要因이 빠르게 되었다. 從來의 教育体制가 素質이 있는 兒童들만 經濟的인 能力이 뒷받침 될 수 있는 兒童들만 더 높은 教育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兒童들의 素質과 經濟的인 能力이라는 것이 바로 社會階層的으로 制約된 것이었다. 이러한 社會階層的인 制約이 排除되지 아니하면 教育의 機會均等과 教育의 民主化는 이루어질 수 없다. 素質이라는 것은 大體로 生得의 것이 아니고 어린時節에 家庭環境안에서 의 社會化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教育의 民主化 乃至 大衆化는 存立하는 社會秩序를 現狀 그대로 固守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의 不安한 要因이 된다. 勿論 發展된 産業國家들에 있어서 더 높은 教育을 社會的인 階層들의 差異를 超越해서 大衆化한다는 것은 大衆을 知性化 하는것을 志向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不可避한 手段으로서 생각되고 있는 것이지만 技術的이고 經濟的이고 職業的인 領域에서 質的으로 向上된 人刀이 政治的이고 社會的인 領域까지 침투할 可能性은 排除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勞働刀이 技術的인 職業的인 面에서만 質的으로 向上되는 것이 아니고 政治的이고 社會的인 思惟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技術的인 職業的인 教育이 政治的인 意識形成으로 전환하면 그것은 現存社會의 秩序를 위해서는 威脅이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勿論 여러가지 不条理를 그대로 안고 있는 不合理한 社会構造의 現状維持를 위해서는 이러한 威脅은 매우 深刻한 것이다. 그러나 人間의 社会에 있어서의 “不条理”나 “不合理”나 하는 것은 相對的인 概念이다. 完全히 合理的인 社会構造라는 것은 觀念的인 表象으로서만 存在한다. 그리고 그러한 觀念的인 表象들도 基本的인 哲學에 따라서 相對的이다. 그래서 社会는 啓蒙主義와 産業化以來 教育이 점차적으로 大衆化하면서부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威脅에 對処하기 위해서 意圖的으로 政治教育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넓은 意味에서의 政治教育은 教育의 目的과 組織과 內容과 方法에 대한 社会体制의 作用 그리고 자라나는 兒童들을 社会体制 안으로 引導하는 社会化의 過程을 全体的으로 意味한다. 이런 意味에서는 社会의 機能으로서의 教育은 곧 價值體系와 모든 支配 構造를 포함한 社会秩序의 維持 發展을 위한 政治教育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意味에서의 政治教育은 그 社会의 「이데오로기」 支配的인 觀念들 行動規範들을 正當化하고 이것들을 자라나는 兒童들의 人格속에 內面化시킴으로서 그 社会의 價值體系를 維持하고 發展시킬려는 教育을 意味한다. 이러한 좁은 意味의 政治教育에는 그 社会의 「이데오로기」와 反對되는 「이데오로기」에 대한 批判 反對의 傾向을 가진 觀念들의 背景 그 社会의 價值體系에 違背되는 行動規範들에 대한 批判등이 必然的으로 따른다. 한 社会가 自体안에 많은 不条理를 지니고 있는 後進社会일 경우에는 政治教育은 이러한 異質的 社会体制에 대한 批判의 形式을 취하고

合理化를 向해서 發展하고 있는 社會에서는 政治教育은 그 社會의
 「이데오로기」와 支配的인 觀念들과 이에 따르는 行動規範들을 內
 面化시키는 肯定的인 積極的인 形式을 취한다. 勿論 異質的인 社會
 體制가 심각한 外部로부터의 威脅이 될때는 어떤 社會에서도 이에
 對한 批判이 政治教育의 重要한 하나의 課題가 된다. 어쨌든 教育
 이라는 것이 하나의 社會의 機能으로 나타나게 되고 社會的인 事
 業으로 등장하고 教育體制가 國家에 의해서 뒷받침 되면서부터 넓
 은 意味의 혹은 좁은 意味의 政治教育은 늘 있었다. 政治教育의
 形式들이나 이름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모든 學科目들의
 教育原則으로서 혹은 특수한 하나의 科目으로서 國民生活 市民生活
 社會 또는 道德 등의 이름으로 다루어질수도 있다. 教育의 歷史는
 늘 어느時代를 莫論하고 政治教育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어떤 社會的으로 支配的인 階層도 어떤 政治도 直接 혹은 間
 接으로 表面的으로 혹은 潛在的으로 教育體制를 그들의 觀點에서
 正當하다고 생각되는 國家觀 혹은 社會理念의 普及을 위해서 利用
 하지 아니한 階層이나 政府는 없었다.

4. 政治教育의 社會的 機能

政治教育은 두가지 서로 다른 社會的인 機能들을 가졌다. 하나는
 現存하는 社會를 超克하면서 未來를 指向하는 發展的이고 進
 步的인 機能이고 다른 하나는 現存하는 社會의 現狀을 保守하고

現在의 支配構造를 防衛하는 機能이다.

社會的인 現實속에서는 政治教育은 첫째로는 勿論 現存하는 支配
構造의 보존과 社會的인 政治적인 現象유지에 이바지 한다.

政治教育도 교육체제 전체와 마찬가지로 社會의 機能으로 이해되
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의 目的 課題 內容은 社會的
文化的 構造와 發展에 依存해서 決定된다. 이것은 政治教育의 社
會的인 機能은 原則的으로 社會的인 現實을 美化해서 現狀을 든든
히 保存하는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政治教育은 그 社會의 지배적인 勢力과 계층의 關心과 需要에
副應함으로서 事實은 現存하는 權力構造의 保存을 위한 政治의 하
나의 手段이 되는 것은 否認할 수가 없다. 어떤 社會든지 그
社會의 支配的인 勢力을 형성하고 있는 人間들은 그들의 價值體系
와 秩序體系가 특정한 階層의 利益을 초월한 모든 階層의 公益을
위한 것이며 普遍的인 價值意識의 集約이며 따라서 그 內容은 적
어도 原則的으로 異議를 提起할 수 있는 性格의 것이 아니라는
見解를 보급시킬려고 한다.

어떤 社會體制에서도 그속에서 支配的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集團들은 언제나 그들의 體制가 무너지는것을 顯할 理가 없다. ✓

모든 社會秩序는 언제나 根本的인 變革으로부터 스스로를 保護할

려고 한다. 자라나는 世代的 敎育과 政治敎育이 이를 위한 手段으로 利用되지 않을 수 없다.

社会的인 機關으로서의 學校가 그 社会的 支配的인 勢力의 영향 아래 드러나고 그 社会構造에 적응하고 그 社会的 課題에 이바지하는 것은 不可避한 일이다.

따라서 學校敎育과 政治敎育이 그 社会的 變革을 위한 要因이 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 社会的 現狀을 分析하고 不条理를 밝혀내는 批判的인 敎育은 곧 그 社会的 支配勢力의 抑壓을加하게 된다. 다만 現存하는 社會를 통해서 주어진 限界안에서만 進歩的인 혹은 保守的인 敎育이 있을 수 있다. 어제든 公敎育에서 그 社会的 變革을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批判意識을 길러줄 수 있는 機會는 매우 적다.

그 社会的 基本構造를 그대로 두고 發展的인 變化를 志向하는 그러한 參與意識을 길러 준다든지 혹은 그 社会的 基本的인 理念을 토대로 해서 個別的인 現象들을 合理化할 수 있는 그러한 批判精神을 길러주는 것은 그 社会的 敎育體制에 따라서 程度의 差異는 있지만 可能하다.

그러므로 敎育을 통해서 人間을 그 社会的 支配構造로부터 어느 정도 解放시킬 수 있는지 政治敎育을 통해서 참다운 民主化가 어

느정도 可能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 問題는 결국 人間이 社會化의 과정에서 어느정도 그 社會의 現狀을 超克할 수 있는 批判的이고 創造的인 能力을 얻을 수 있는지의 問題와 연결된다.

그런데 敎育의 마지막 目標은 언제나 人間의 人間化 곧 人間을 모든 억압적인 要素들로 부터 解放시켜서 人間다운 人間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政治敎育의 마지막 目標은 現存하는 支配構造를 保存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合理的인 批判意識을 길러서 모든 사람들이 人間다운 生活을 함으로서 人間다운 人間이 될 수 있는 그러한 民主社會를 건설하는데 있다.

人間다운 人間이 되는 것도 社會化의 과정을 거쳐서만 可能하기 때문에 그것은 社會의 民主化를 前提하고서만 생각될 수 있다.

5. 政治敎育의 意義와 限界

敎育體制와 政治敎育이 언제나 첫째로는 現存하는 社會體制와 그 支配構造의 保存에 이바지한다고 해도 그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人間化와 民主化를 위한 敎育이 어떤 狀況들 아래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公教育이 시작된 以來 어떤時代에 있어서도 아무런 問題도 葛藤도 없이 그 社会体制에 適應한 한일도 또한 없다.

完全한 独裁体制가 아니면 教育의 批判的이고 革新的인 役割을 全的으로 억압할 수 있었던 時代는 거의 없었다.' 社会의 革新을 위한 衝動이 教育으로부터 이어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未來에 있어서도 教育을 完全히 現状維持를 위해서만 奉仕시킬려는 努力은 어려움에 부딪칠 것이다.

社会体制가 矛盾과 對立을 통해서 均衡을 잃게되면 教育의 批判的이고 革新的인 機能을 위해서 機會가 주어진다.

現實을 美化하기도 어렵게되고 現状에 적응하기도 어렵게된 그러한 狀況이 바로 教育의 革新的인 機能을 위해서는 좋은 機會가 된다는 것이다.

政治教育의 두가지 機能들 곧 保守的인 機能과 革新的인 機能중에서 어느쪽이 더 強하게 作用할 수 있게 되느냐는 것은 學校나 教育自體에 달려있다고 보다는 社会的인 支配構造와 權力關係의 狀況에 달려있다.

社会的으로 要講되는 것은 不安定한 社会에서는 政治教育의 保守的인 機能이 安定된 社会에서는 政治教育의 批判的인 機能이 用납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安定된 社会에서 政治教育의 批判

的 機能이 용납되는 것은 그 社會의 支配構造가 그것으로 因해서 크게 威脅을 받지 않는 때문이다.

社會가 不安定되고 支配構造가 동요하고 그 社會가 全体的으로 外部的인 内部的인 도전을 받을 때는 언제나 政治敎育은 그 社會體制의 保存을 위해서 保守的인 機能이 一方的으로 요청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社會가 矛盾과 對立을 통해서 均衡을 잃으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政治敎育의 保守的인 機能은 아무리 強調해도 効率的으로 발휘될 수 없고 오히려 批判的인 機能을 위해서 機會가 주어진다.

政治敎育의 保守的인 機能에 있어서도 政治敎育의 革新的인 機能에 있어서도 時代에 따라서 그 具體的인 目標들과 內容들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러한 具體的인 目標들과 內容들은 여러가지 社會的인 狀況들에 따라서 變化한다. 그러나 이러한 具體的인 目標들과 內容들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政治敎育의 保守的인 機能은 언제나 그 社會의 文化的 傳統과 그속에 담겨있는 價値와 規範의 體系를 現存하는 社會體制와 함께 保守하려고 하고 政治敎育의 革新的인 機能은 人間化를 阻害하는 모든 社會的인 要因들로 부터 人間을 解放하고 성숙하고 自立的인 未來의 人間을 위한 社會를 이룩하려고 한다. 그런데 政治敎育의 이러한 두가지 社會的인 機能

들의 課題들이 各各 効率的으로 實現되는 것은 教育体制의 構造와 組織에 거의 全的으로 依存한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의 問題는 教育体制의 改革의 문제와 연결된다. 그런데 教育是 社会의 機能이며 教育体制는 社会体制의 一環이다. 그러므로 社会가 스스로 矛盾과 對立을 克服하지 못하고 不條理를 排除하지 못하면 政治教育의 機能에는 넘을 수 없는 限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反共教育 安保教育 새마을教育 維新教育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모두 体系化되지 못한 그리고 教育學的으로 充分히 反省되지 아니한 每번 政治口號를 뒤쫓는 政治教育이다.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지든 우리의 政治教育은 우리社会가 겪는 內的인 外的인 威脅때문에 늘 우리의 社会体制를 固執하려는 保守的인 機能을 강조한다. 그런데 우리 社会가 지니고 있는 矛盾 對立 不條理등이 바로 우리의 政治教育이 거기에 부딪치는 限界線이다.

우리社会가 지닌 不條理는 직접 우리의 政治教育의 限界線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教育体制를 통한 間接的인 限界線이 된다.

社会的 不條理는 教育体制에 그대로 反映되고 教育体制의 不條理는 政治教育의 効率性을 극단으로 沮害하기 때문이다.

Ⅲ. 社会意識을 爲한 政治教育

1. 啓蒙과 ایده오로기批判

우리 사회의 다음 주인이 될 자라나는 兒童들은 社会的인 政治的인 環境안에서 스스로 責任과 課業을 완수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生活이 全体的인 社会의 生活의 一部라는 것을 理解해야 한다. 그들은 個人的인 生活이 社会的인 政治的인 發展과 連結되어 있다는 것을 認識해야 된다. 그들은 그들 自身の 狀況 그들의 行動 그들의 家族과 學校와 職業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關係들이 모두 社会的으로 制約된것이라는 것을 認識할줄 알아야 한다. 자라나는 靑少年들은 그들의 社会的인 關心을 發展시키고 우리 사회안에서의 그들의 政治的인 位置를 發見하고 社会的인 政治的인 生活의 葛藤속에 介入하고 參與할수 있는 能力을 길러야 한다. 分析的인 能力과 批判的인 理性的인 건전한 活用을 위한 教育만이 人間으로 하여금 現代의 操作技術과 群衆心理의 犠牲物이 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歷史의 主体가 되고 社会의 歷史的인 發展의 主体가 되게 만든다.) 人類 文化의 歷史와 더불어 자라난 人格의 自律과 自由의 概念도 具体的인 社会的인 條件들과의 關係에 있어서 理解되어야 한다. 人格의 自律과 自由의 概念은 決코 社会的인 條件들로부터 分離된 中立的인 空間안에 있는 抽象的인 概念으로서의 人間存在에 대한 概念은 아니다. 具体的인 社会的인 條件을 떠난 存在는 動物이나 天使이지 人間은 아니기 때문이다.

人格의 自律과 自由라는 것은 주어진 社会的인 構造를 批判的으로 認識함으로써 그러한 社会的인 構造와 一定한 距離를 意識속에 가질수있는 能力에서 表現된다. 이러한 社会構造가 社会的으로 歷史的으로 透明해지지만 그것은 人間存在의 人間化와 民主化를 志向하는 努力을 위해서 주어진 基本与件이 된다. 그러므로 社会的인 条件들과 그들의 可變性에 대한 省察은 人間教育의 중요한 構成的인 要素이다.

政治教育은 흔히들 생각하는것 처럼 責任 公益 協同등의 概念들을 통해서 調和로운 社会像을 그리는 것으로 全部라고 생각되어서는 않된다. 現實的인 社会가 矛盾과 對立을 통해서 均衡을 잃고 있으면 그러한 政治教育만으론 어떠한 成果도 기대하기 어렵다. 國家的인 機關들과 組織들과 社会体制에 대한 知識이나 理解만으로도 政治教育이 成果를 거두기는 어렵다. 政治教育은 오히려 그 社会的인 支配構造의 現實的인 問題들로 부터 出發해서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그리고 앞으로 可能的인 여러가지 葛藤과 對立을 分析하고 더 合理的인 社会秩序를 志向하는 그러한 教育이어야 한다. 앞으로의 目標가 늘 함께 考慮되어야 批判的인 意識이 健全한 機能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社会안에 潛在하는 혹은 表出된 對立과 葛藤의 分析을 통해서만 支配構造와 이베오로기들이 그 全体社会的인 關聯關係에서 드러난다. 社会的인 現實과 政治的인 問題들과 權力과 支配를 위한 葛藤등을 分析하고 批判할수 있는 能力을 길러 주어야 자라나는 靑少年들로 하여금 社会的인 現實에 対応할 수 있게 만든다. 批判的인 理性을 가지고 社会的인 現實的인 政治的인

문제들에 接近할줄 알아야 盲目的인 追從이나 盲目的인 反動을 함께 回避할수 있다. 이런 意味에서 政治教育은 現實的인 支配構造를 透明하게 드러내고 社会的인 문제들을 分析하고 批判的인 判斷의 능력을 기르는 啓蒙이라고 할수 있다.

만약 政治教育이 이런意味의 啓蒙이라면 모든 不合理한 社会構造를 保存하기 위한 操作 Manipulation과 偽裝 Verschleierung을 發見해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한다. 따라서 政治教育은 언제나 啓蒙的인 이데오로기批判이기도 하다. 이데오로기批判은 勿論 첫째로는 敵對的이고 異質的인 社会体制의 이데오로기들에 대한 批判이지만 同時에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그들 스스로의 社会体制를 人間의 解放과 人格의 尊嚴性의 理念의 빛아래서 分析하는 批判도 함께 意味한다. 이데오로기라는 것은 現存하는 社会秩序를 正当化하기 위한 教條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데오로기들은 保守的인 性格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데오로기批判은 理論과 事實이 合一하는지를 分析해야한다. 理論과 事實의 合一뿐만 아니라 理論과 그것을 主張하는 사람 혹은 集團의 利害사이에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分析해야한다. 이데오로기批判은 더 나아가서 특수한 集團들의 意識構造 밑바닥에 놓여있는 社会的인 利害關係와 歷史的인 條件들을 分析해야 한다. 이러한 批判的인 分析을 그 특수한 集團들이 내세우는 條件들의 背後를 透明하게 드러낸다. 이렇게해서 政治的인 權力과 支配의 動機를 合理的으로 살필수 있게되고 政治的인 行爲의 真正한 原因과 그것을 正当化하기 위한 理論사이의 矛盾을 드러낼수 있게 된다. 이러한 啓蒙的인 이데오로기 批判을 통

해서 政治的 敎條의 盲目的 魔力으로부터 人間을 解放시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政治敎育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共産主義의 敎條의 魔力으로부터 人間을 해방시키는 일이다.

万若 政治敎育을 啓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批判的인 理性의 合理性和 연결된다. 社会的 存在로서의 自我認識 그리고 社会的 環境의 認識 그리고 合理的인 狀況判斷 등은 다만 合理性을 志向하는 理性的인 省察을 통해서만 可能하다. 그러므로 政治敎育은 合理的인 思惟를 통하지 않고는 正當한 行動은 不可能하다는 原則으로부터 出發해야 된다. 合理性이라는것은 民主主義를 위한 前提일뿐만아니라 社会的 人間化를 위한 前提이기도 하다. 合理性和 理性을 통해서만 人間은 그의 政治的인 運命의 主体가 될 수 있고 그 自身の 歷史의 主体가 될 수 있다. 合理性을 통해서만 人間은 모든 抑壓的인 勢力들과 制度들을 批判할 수 있다. 合理性에 의해서만 人間은 社会的인 操作에 對抗해서 批判精神과 抵抗力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批判的인 啓蒙으로서의 政治敎育은 社会的인 機關들과 構造와 體制에 대한 合理的인 認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勿論 人間の 理性은 그 人間の 心理의 情緒的 基盤의 影響을 크게 받는다. 따라서 理性은 늘 限界에 부딪힌다. 그리고 人間の 行動을 決定하는데 있어서 合理性이 唯一의 要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 人間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普遍妥當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人間の 理性은 그의 個人的인 社会的인 狀況에 의해 制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

한 人間의 理性的 制限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開放的인 對話와 討議를 필요로 한다. 開放的인 對話와 討議를 거부하면 人間은 獨斷에 이르게 된다. 獨斷은 合理性과는 매우 멀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을 위해서 開放的인 對話와 討議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意義를 가졌다. 만약 人間의 理性이 制限性을 가졌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開放的인 對話와 討議의 길뿐이다.

感情이나 情緒에 호소하는 政治教育 곧 理性 以外的 길을 통해서 人間의 態度와 行動을 變化시킬려는 政治教育은 결국 人間操作이 될 것이다. 그것은 政治教育이 아니라 操作이며 煽動이다. 이러한 政治教育은 人間의 社會生活과 政治生活을 非理性的인 要素들에 의해서 支配되게 만들고 合理的인 社會秩序를 沮害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처럼 6.25를 경험했고 우리 社會 自體內에 많은 不條理를 안은 채 外部的인 威脅에 긴급하게 對峙하지 않을수 없는 狀況아래서 反-共教育이라고 불리워지는 政治教育을 주로 感情에만 호소하게 된 것은 不可避했다고 하더라도 그 恒久的인 効果와 우리 民族社會의 먼 將來를 생각하면 그리고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앞으로의 社會生活을 위한다면 하루빨리 止揚되어야 한다. 不條理에 對해서 非合理性으로 對峙하는 것은 論理的으로도 矛盾이며 긴 眼目으로 보면 참다운 秩序를 위하는 길이 아니다.

2. 社會意識의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

政治教育은 啓蒙과 이데오로기 批判이며 同時에 社會意識을 위한 教育이다. 우리의 靑少年들이 그들의 社會的인 狀況을 認識하고 個

人的인 運命과 社会的인 발전의 關係를 파악하고 政治와 社会的 關係를 認識할 수 있도록 教育시키는 것이 政治教育의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하면 政治教育은 그 社会的 政治的인 構造와 機關들과 制度들을 파악하게하는 것과 同時에 人間들의 生活에 있어서의 모든 現象들과 모든 行動方式들을 社会的인 政治的인 性格의 것으로 理解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것이다. 人間の 環境과 人間の 經驗과 人生의 여러가지 問題들을 언제나 그 社会的인 原因들과의 關聯아래서 分析하고 理解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한다. 이런意味에서 政治教育이 하는것은 社会生活의 教育이다. 이러한 教育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靑少年들은 그들의 社会的인 環境과 社会的인 變化를 理解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教育을 통해서만 그들은 우리의 時代에 있어서의 世界와 社会的 革命的인 變化의 意義를 理解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社会意識을 위한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은 한마디로 말하면 社会를 하나의 全体的인 有機體로서 觀察하고 個人的인 行動과 운명을 社会構造와 社会發展과의 關聯아래서 觀察하고 分析할 수 있는 思考方式을 위한 教育이다.

이러한 思考方式을 밀즈Mills는 “社会的인 思考方式”이라고 하면서 그 세가지 特徵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있는 이 社会는 하나의 全体的인 有機體로 어떤 構造를 가졌느냐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本質的인 構成要素들은 무엇이며 그들은 서로 어떻게 얽혀있는가 우리의 社会는 다른 形態의 社会와 어떻게 区分되는가 現在의 社会構造의 存続과 變化는 어떤 意味를 가졌는가 등의 問題들을 생각하는 것이

다.

둘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수한 사회는 歷史속에서 어떤 위치를 가졌는가 人類歷史의 發展을 위해서 이 사회는 어떤 위치와 意味를 가졌는가 또한 人類歷史의 發展은 이 사회에 어떤 作用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회는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變化될 것인가 우리時代의 本質的인 特徵은 무엇이며 무엇을 통해서 다른 時代들과 區別되는가 等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로는 어떤 種類의 人間들이 이 사회안에서 支配的인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가 어떤 人間들이 未來까지도 支配하게 될 것인지 그러한 人間들은 어떻게 選拔되고 어떻게 그들의 사람됨이 이룩되고 그들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銳敏하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鈍感한가 우리가 우리의 時代 우리의 사회에서 觀察할수 있는 여러 가지 行動方式들과 人間的인 特性들속에서 어떤 種類의 人間성이 드러나는가 人間性은 社会的인 現實에 대해서 어떤 意味를 갖는가 等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社会現實의 全体的인 關聯에서 分離된 政治的인 經濟的인 法律的인 문제들이 없는것 처럼 人間으로 하여금 그의 社会的인 政治的인 存在를 인식하게 하려는 政治教育은 社会的 어떤 部分的인 領域만을 注目할수는 없다. 社会意識을 위한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은 政治的인 法律的인 經濟的인 心理的인 現象들을 늘 社会現象으로서 理解하는것을 가르쳐 주어야하고 그러한 現象들을 언제나 社会全体와의 關係에서 觀察하는 思考方式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 個別的인 現象들속에서 社会的인 構造体系 全体가 드러날수있도록 觀

察하는 것이다. 이러한 敎育을 통해서만 자라나는 靑少年들은 社會를 全體的으로 理解할 수 있게 되고 人間의 社會性을 그 全體的인 關聯關係와 더불어 理解할 수 있게 된다. 그의 社會의 모든 個別的인 現象들을 全體的인 社會的인 關聯關係를 통해서 分析하고 모든 問題들과 모든 葛藤을 늘 그 社會的인 政治的인 法律的인 經濟的인 心理的인 歷史的인 次元에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當面하는 어떤 事件이나 어떤 問題를 그 社會的인 政治的인 關聯關係를 통해서 分析하지 못하는 것은 社會意識을 위한 敎育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志向하는 個人的인 成功이나 個人的인 幸福도 그것들을 社會的인 關聯關係와 더불어 理解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社會意識을 위한 敎育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專門化되고 分業化되고 하나의 全體的인 關聯體로서의 社會로부터 疎外된 社會科學들에게서만 이러한 社會意識을 위한 敎育을 기대하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다.

앞에서 引用된 밀즈의 社會的인 思考方式의 세 가지 特徵들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社會意識을 늘 모든 社會現象들을 歷史的인 性格의 것으로서 理解한다 社會意識과 歷史意識은 相互依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政治敎育은 늘 政治的인 社會的인 現象들의 歷史的인 次元을 注目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政治的인 努力을 民族中興이라는 標語로서 드러낸다면 그것은 社會意識과 함께 歷史意識이 없으면 理解될 수 없는 말이다. 全體的인 社會도 그 個別的인 機構 制度 等도 언제나 歷史的인 性格의 것으로서 理解되어야 한다. 過去의 傳統이 있기 때문에 現在의 狀態가 있고

未来에 대한 展望이 있기때문에 現在의 創造的인 努力이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1) 社会意識을 위한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은 자라나는 靑少年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洪水처럼 미리닥치는 知識과 情報들을 整理하고 分析해서 自身の 社会的인 行動을 위한 그것들의 意義를 찾아낼수 있도록 만들어야한다. 만약 그들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그들의 個人的인 生活과 社会的인 構造와 歷史的인 發展이 不可分의 關係를 가졌다는 것을 認識하게되면 그들은 人間的인 삶의 社会的인 制約性을 理解할수있게될 것이며 또한 自己들 自身이 全体社会和 有機的으로 關聯된 一部라는 것을 알게될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들 많이 要請하는 (共同體意識이나) 協同精神은 이러한 根本的인 社会意識을 위한 政治教育없이 는 바랄수가 없다. 그것은 마치 뿌리없는 데서 꽃을 求하는것과 같다. 社会意識을 背景으로해서만 人間은 비로소 自身の 運命이 다른 人間들의 運命과 연결되어있다는 것을 認識할수있게된다. 그의 自由도 그의 幸福도 社会全体의 狀況과 直結되어있다는것을 깨닫게된다. 만약 社会意識을 위한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이 個人과 社会의 不可分의 關聯關係를 認識시키는데 成功하려면 자라나는 靑少年들의 모든 個人的인 經驗들과 苦痛들과 葛藤들을 들어서 그것들이 社会的인 性格의 것이라는 것을 理解시켜야한다. 다시 말하면 자라나는 靑少年들은 그들의 經驗들과 그들이 當面하는 문제들을 그 社会的인 關聯性을 통해서 분석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또한 反對로 社会的인 狀況들도 自身을 包含한 個人들의 運命과 關連시켜서 解釋하는것을 배워야 한다.

人間은 그에게 주어지있는 社会的으로 制約된 可能性과 그 限界를 알아야 行動을 위한 決斷의 自由를 行使할수 있게 되고 새로운 狀況에 처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된다. 人間은 公的인 혹은 私的인 事件들을 社会的으로 制約된것으로서 視察할 수 있고 그 社会的인 關聯性和 연결시켜서 理解할수 있어야 그는 그의 社会안에서의 自身の 位置를 發見하게 된다. 이러한 社会意識은 政治的인 參與의 基礎를 이룬다. 왜냐하면 社会意識을 통해서만 人間은 그의 社会的인 政治的인 行動의 社会的인 意義를 인식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社会的인 与件들의 分析을 통해서만 人間은 自身の 行動을 위해서 合理的인 決斷을 할 수 있게된다.

3. 政治教育和 價值判斷의 問題

規範의 問題와 價值判斷의 問題도 政治教育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政治教育은 처음부터 올바른 價值判斷을 위한 教育이기 때문에 이른바 不偏不党한 政治教育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一方的으로 硬化된 規範体系나 教条的 價值体系를 위한 教育은 바람직한 政治教育도 바람직한 人間教育도 아니다. 政治的인 社会的인 領域에서의 知識과 理論에 關한限 이른바 價值中立的인 客觀性이란 바랄수가 없지만 政治教育에 있어서는 最大限度의 客觀性이 요청된다. 흔히 하나의 社会体制가 다른 하나의 異質的인 社会体制에 의해서 威脅을 받고 있을때 政治教育의 중요한 하나의 과제는 그 異質的인 社会体制에 대한 批判이다. 그런데 이런 境

遇에 있어서 그 批判이 심히 主觀的이고 我田引水格이면 그런 批判은 教育이 아니고 宣傳에 不過하게 될것이다. 客觀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의 效果를 기대하기 어려운 宣傳이 될것이다. 우리의 反共教育이 時代的인 狀況의 變化에 따라서 쉽게 동요하는것은 그 때문이다. 政治教育에 있어서도 可能한限 最大의 客觀성이 요청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또한 그 社會에서 支配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를 盲目的으로 志向하는 教育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라나는 靑少年들을 政治的인 社會的인 狀況에 適應만 시키고 傳承된 價值體系와 規範體系에 대한 合理的인 批判의 能力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大體로 자라나는 兒童들은 그들의 社會化의 과정에서 그 社會의 一般的이고 支配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를 習得하고 內面化한다. 그러나 政治教育은 그러한 一般的이고 支配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에 대해서 一定한 距離를 가지고 合理的으로 批判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주어야 한다. 傳承된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를 權威主義的으로 習得시키는 것은 民主的인 教育의 原理에도 위배된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처럼 社會構造가 急變하고 傳統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가 뒤흔들리는 混亂의 時代에 있어서는 그렇게 盲目的으로 一般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를 志向한다는 것은 實際에 있어서 不可能한 일이다. 傳統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는 變化된 社會構造와 矛盾關係를 이루고 또한 歷史的인 發展에 의해서 이미 낡은것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의 變化하는 社會에는 傳統的인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는 물

락하고 一般的으로 妥當한 自明한 價值體系나 規範體系가 없기 때문에 價值判斷의 문제를 教育과는 分離시켜서 個人的인 決斷의 문제 곧 個人之事로 돌려버릴려는 傾向이 있다. 一般的으로 妥當한 價值體系나 規範體系가 없을뿐만 아니라 客觀的인 社會的 事實들의 分析에서도 價值判斷이 나올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社會的인 現象들의 分析과도 無關한 自由로운 決斷으로서의 價值判斷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價值判斷과 이에 根柢한 政治的인 決斷은 個人的인 信仰이나 世界觀에 근거한 個人之事라는 것이다. 그것은 社會的인 現象들의 分析에서 誘導될수 없는 性格의 것으로서 個人이 決定할 性格의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價值判斷은 一般的인 妥當性이나 拘束力은 全然없고 政治的인 決斷은 마치 個人的인 信仰告白 처럼 되어버린다. 여기서는 政治教育은 다만 價值中立的인 事實들의 客觀的인 分析과 情報傳達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와같은 價值中立的인 政治教育이 果然 바람직한 것인가 社會的인 政治的인 事實들과 그 事實들의 關聯關係에 對한 "純粹한" 情報의 傳達로서 果然 政治教育은 끝날수 있는가 社會的인 現象들의 "純粹한" 分析만으로 充分한가. 政治教育이 價值問題를 排除할때 果然 그러한 價值中立的인 政治教育이 자라나는 靑少年들로 하여금 올바른 社會參與를 할수 있게 만들수 있는가 이러한 質問들은 모두 否定的으로 對答될수 밖에 없다. 政治教育의 目的은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올바른 社會參與를 위한 關心과 能力을 길러주어서 社會發展과 國家建設에 이바지하고 이를 통해서 最善의 自我를 實現하게 하는데 있다. 그런데 만약 政治教育이 價值判斷의 문제를

個人之專로 둘러 버리고 價值中立的인 知識들과 情報들만 전달하면
그러한 教育은 知識들만 축적하는 情報收集家 곧 말을 할 줄 알지
만 犧牲的으로 參與할 줄은 모르는 無關心한 局外者를 만들 것이다.
그러한 人間은 境遇에 따라서 知識을 내세울 수 있지만 便利하게
살기 위해서 혹은 이른바 客觀性 때문에 중요한 行動의 決斷은 廻避
할 것이다.

그리고 實際에 있어서 價值中立的인 政治教育은 不可能하다. 純
粹한 情報들을 客觀的으로 傳達만 한다고 해도 이미 無數히 많은
洪水같은 情報들 중에서 그 전달해야 할 情報의 選択과 전달을 위한
最少限度의 解釋에 이미 숨은 價值判斷이 포함되어 있다. 事實들과 그
事實의 關聯關係들에 대한 價值中立的인 전달이라는 것은 이미 認識
論的으로 어려움에 부딪힌다. 社会的인 現象에 대한 認識은 언재
나 社会的으로 制約되기 때문에 純粹한 客觀性이란 있을 수 없다.
특히 政治教育이란 社会的인 利害關係와 政治的인 對決로 直接 연
결된 것이기 때문에 純粹한 客觀性이란 하나의 환상이다. 政治教育도
이미 하나의 종류의 政治的 行動으로서 社會參與이다. 政治教育
의 目標은 곧 政治的인 目標이다. 그리고 政治教育의 動機도 政
治的인 性格의 것이다.

우리 時代의 政治教育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傳承된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를 盲目的으로 志向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價值中立的
인 政治教育을 할 수도 없다. 여기에 政治教育 내지 教育自體의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教育이기 때문에 어떤 教條的인 價值體系
나 혹은 教育者 自身の 無反省的인 價值觀을 앞세우고 被教育者를

조종할 수도 없다. 政治教育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靑少年으로 하여금 自主적으로 올바른 價值判斷을 할수있는 能力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教育者는 다루어야 할 社会的인 문제를 될수있는대로 先入觀없이 드러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價值判斷을 내리기전에 그 문제를 可能한 모든 角度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도 教育者 自身이 그문제에 대해서 조급한 判斷을 내리지 말고 學生들이 自主적으로 判斷할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政治教育에서는 價值體系와 規範體系 自体를 또한 分析과 研究와 反省의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 價值判斷의 基盤이되는 意識構造와 思考方式과 利害關係와 이데오로기 등이 分析의 對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들이 그社會의 支配構造와 어떤關係가 있는지도 分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靑少年들이 價值와 規範의 문제를 그 歷史的이고 社会的인 根源과 더불어 分析하고 그러한 價值와 規範을 社会 經濟的인 構造와 文化的 發展과의 關係아래서 分析하고 理解할수 있는 能力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다. 社会階層的으로 制約된 價值體系와 規範體系는 특수한 社会的인 集團들의 利害關係와 연결되어 있다는 事實도 認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 社会에서 一般的으로 인정되는 價值觀을 合理的으로 파악하고 歷史的으로 社会的으로 批判하는 것은 人間의 社会参与와 政治参与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政治教育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問題는 어떻게 바람직한 價值觀을 成立시키느냐는 것이다. 價值觀이라는 것은 단순한 主觀的인 選擇에 의해서

成立되는 것도 아니고 純粹한 人格的인 決斷이나 告白에 의해서 形
成되는 것도 아니다. 狀況과 事實들의 公正하고 包括的인 觀察 그
리고 合理的인 解釈과 理解의 深化등을 통해서 價值觀은 成立된다.
價值觀은 반복된 설교나 憲章形式의 指標나 權威主義的 注入을 통
해서 이루어질수있는 性格의 것은 아니다. 자라나는 靑少年들로 하
여금 社会的인 狀況과 歷史的인 事實들을 公正하고 包括的으로 分
析하게하고 그것들을 合理的으로 해석하고 깊히 理解하고 意慾的으로
未來志向的으로 參與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價值觀에 이루도록 教育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4. 政治教育에서의 現實과 理想

從來 民主主義教育이니 市民教育이니 國民倫理教育이니 反共教育이
니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워온 政治教育에서 우리社會에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여러가지 利害關係의 葛藤과 不條理등의 문제는 全然
意識的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一律的으로 公益과 協同과 總
和 등이 強調되었다. 따라서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人間의 社会的
인 行動이 社会的인 利害關係에 의해서 制約된다는 단순하고 매우
初步的인 事實조차 가르쳐 줄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教育받은 靑
少年들 社會의 어떤 不條理에 직면할때 어떻게 反應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教育받은 靑少年들이 아무 준비 없이
社會現實에 直而하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받은 教育의 效果를 어
떻게 나타낼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어떤 社會에나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利害關係의 對立과 葛藤 그 社會에 特有한 不條理등을
歷史的인 社会的인 關係에 있어서 分析하고 把握하는 것을 배우
지 못하고 公益이니 協同이니 總和니 하는 德目만 익혀도 그것은
現實的인 社會生活에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利害關係의 對立과 葛藤은 어떤 形態의 社會에도 現實적으로 存在하는 것이며 不條理는 人間들의 社會에서는 完全히 뿌리 뽑아질 수 없다. 民主主義의 原理는 그러한 葛藤과 不條理를 合法的으로 그리고 開放적으로 對峙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現實社會에 그러한 葛藤과 不條理가 있다는 것 따라서 社會生活은 鬭爭이라는 것 그리고 人間의 社會的 行動은 利害關係에 의해서 制約된다는 事實들을 숨기지 않고 그러한 事實들을 理解하게 하고 不斷한 葛藤과 特有的 不條理를 그 社會的인 歷史的인 關聯關係에서 分析하고 歷史的 發展과의 關係아래서 理解하고 그러한 葛藤과 不條理에 끊임 없이 對決하려는 용기를 길러주는 일이다. 만약 政治教育이 이러한 社會的인 利害關係의 分析을 回避하면 그것은 意識적으로 혹은 無意識的인 現在의 支配的인 階層의 利益과 現在의 社會構造의 盲目的인 保存에만 이바지 할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教育은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現實的인 葛藤과 不條理에 合理的으로 그리고 合法的으로 對峙하는 能力을 길러주지 못하기 때문에 긴 眼目으로 보면 매우 危險한 結果를 가져오기 쉽다. 그 社會의 現實的인 利害關係의 葛藤과 그 社會의 現實的인 不條理에 合理的으로 對峙할수 있는 能力이 없는 人間의 생각으로는 公益이 중요하고, 協同이 필요하고 總和가 어떤 時期에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도 現實生活에서는 公益을 위해서 犧牲하거나 이웃과 協同을 하거나 危急한 時期에도 總和를 이룩할 能力도 갖지 못한다.

社會的인 現實에 대한 바른 認識은 理想을 志向할수 있는 土台가 된다. 現在의 狀況을 分析하고 批判함으로서 더 合理的인 狀況을

이룩할려는 意慾이 생기기 때문이다. 政治教育은 자라나는 靑少年들
에게 늘 發展的이고 未來志向的인 意慾을 길러주어야 한다. 오늘
에 발부치고 있으면서 내일을 위해서 사는 人間을 만들어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未來의 理想을 向해서 現在의 現實을 끊임없
이 改造하면서 歷史的 發展의 主体的 役割을 할수있는 人間을 만
들어 주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政治教育이란 바로 이러한 歷史的
發展에 이바지 할수있는 人間을 기르는 人間教育이다.

IV. 人間의 社會化와 政治教育

1. 第1次 社會化의 過程

政治教育이란 根本的으로는 政治參與를 通해서 社會秩序와 歷史發展에 이바지하는 일정한 人間像을 爲한 教育이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은 根本的으로는 人間教育이다. 바람직한 行動을 爲한 人間教育이라는 것이다. 社會的인 狀況들을 理性的으로 分析하고 自主的인 判斷을 通해서 社會의 發展에 이바지 하는 그러한 人間을 길러내야 한다. 政治教育은 亦是 教育이기 때문에 그것은 操縱이나 宣傳과는 다르다. 政治教育은 單純한 感情의 자극도 아니고 單純한 理論과 情報의 注入도 아니다. 政治教育이 그 根本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그것은 人間教育이어야 한다. 政治的인 社會的인 觀點에서 바람직한 人間을 길러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의 反共教育이라는 政治教育이 그 根本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그것이 操縱이나 宣傳에 그치지 않고 兒童들의 感情이나 자극하고 理論이나 情報를 注入하는데 그치지 않고 自主的이면서 理性的이고 社會意識이 있는 民主的 人間을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政治教育은 바람직한 行動을 爲한 人間教育이다.

그런데 人間은 相當히 일찍이 그의 人間性을 爲한 틀을 構築한다. 人間은 이른바 社會化의 過程을 거쳐서 人間이 되는데 그의 人間性의 틀은 이미 第1次 社會化의 過程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萬若 政治教育이 바람직한 人間像을 爲한 人間教育이라면 어

린時節의 社會化的 過程을 注目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政治教育이 社會秩序와 歷史發展을 위해서 바람직한 人間像을 實現하려면 人間의 社會化的 過程에 作用해 들어가야 한다. 萬若 政治教育이 바람직한 人間教育을 통해서 國家와 社會의 앞날을 위해서 든든한 기틀을 마련하려면 兒童들의 어린時節의 家庭에서의 第1次 社會化的 過程에 注目해야 된다는 것이다.

人間은 生物로서는 다른 類似한 動物들에 比해서 매우 不完全한 存在로서 태어난다. 다른 類似한 動物들은 自然으로부터 태어날 때 이미 그들의 肉體的인 器官들과 그 機能들이 一定한 生活環境에 꼭 맞도록 完成되어 있는데 比해서 人間의 境遇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른 類似한 動物들은 出生時에 이미 그들의 肉體的인 器官들과 그 機能들이 專門化되어 있고 完成되어 있지만 人間을 出生할 때 그의 肉體的인 器官들과 그 機能들이 一定한 環境에만 꼭 맞도록 專門化되지도 않았고 固定的으로 完成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人間의 出生은 生物學的으로 觀察하면 다른 類似한 動物들에 比해서 早産이라는 것이다. 다른 類似한 動物들은 母胎라고 하는 保護된 空間안에서 거의 完成되어서 出生하는데 人間은 미리 自然히 保護된 空間인 母胎를 떠나서 社會의 保護된 空間인 家庭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完成해 간다는 것을 意味한다. 人間이 自然으로부터는 未完成의 存在로 出生한다는 것은 人間이 社會안에서 비로소 스스로를 完成해가는 社會的인 存在라는 것을 意味한다. 人間이 自然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은 無限한 可塑性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社會化的 過程을 거쳐서 비로소 人間이 된

다. 그의 肉體的인 器官들과 機能뿐만 아니라 그의 人間性 知能 素質 行動方式 能力등은 社會化의 過程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어린時節의 家庭에서의 社會化의 過程에서 그 基礎과 輪廓이 構築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動物은 自然으로부터 出生하지만 人間은 社會로 부터 出生한다. 自然으로부터 出生한 狀態로서의 人間은 다만 큰 可塑性을 가진 動物에 不可하다. 아직 完成되지 못한 動物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出生하면서부터 人間인 것이 아니고 社會化의 過程을 通해서 人間이 되는 그러한 存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人間이 어떤 人間이 되느냐는 것은 社會化의 過程에 달려 있다. 우리가 社會化를 重要視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社會化는 오늘날 哲學 教育學 社會學 그리고 心理學의 共同研究의 課題이다. 社會化라는 것은 한 人間이 다른 人間들과의 互相 行動을 通해서 그의 生活環境의 要請들에 適應하고 社會의 規範들을 習得하고 그 文化的인 規範들에 適合하게 行動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人間이 되는 그러한 過程을 意味한다. 그래서 理論的으로 社會化의 概念은 教育의 概念을 內包한다. 最近에는 이 두 概念들이 거의 同一한 概念으로 理解되기도 한다. 그래서 에릭슨 Erikson은 教育을 定義하기를 “한 社會集團이 그들의 經驗들의 基本的인 形式들을 자라나는 兒童들의 肉體的인 精神的인 成長에 반영하는 方法”이라고 했고 베른펠트(Bernfeld)는 教育을 人間의 發展에 對한 社會的인 作用들의 總體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教育이라는 概念을 社會化의 概念의 從屬概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좁은 意味에서의 教育은 어떤 意識的인 行動을 말한다.
곧 그것은 無意識的인 模倣을 통해서 배우기 어렵고 日常的이고
社会的인 互相行動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는 複雜한 技術과 知識들
로서 되어 있는 文化的인 傳統의 一部를 전달하려는 專門的인 役
割을 위한 行動을 말한다. 複雜하지 아니한 單純한 技術과 知識
들은 日常的인 社会生活을 통해서 伝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意識的이고 意圖的인 教育이란 매우 어려운 事業이다.

教育이 그렇게 어려운 事業이라는 것은 人間性的 基本構造
Basic Personality 가 이미 어린 時節에 發展된다는 事實과 關
係가 있다. 여기에서 人間性的 基本構造의 構築이라는 것은 무엇
보다도 먼저 物質的인 社会的인 對象들에 對해서 이들을 指向하는
情緒的 基盤의 構築을 意味한다. 一定한 價值判斷의 傾向을 가진
特殊한 情緒的 指向性이 이룩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그의 文
化環境에서 바람직한 方式으로 그의 周圍世界가 特殊한 情緒에
依해서 彩色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情緒的 彩色이 앞으로의 行動方式과 價值判斷의 方向을
決定한다. 이것은 教育을 통해서 強化되든지 弱화될 수는 있어도
根本적으로 變化되기는 어렵다. 深層心理 分析이나 或은 이른바
洗腦等を 통해서도 可能할 것이다.

人間性的 基本構造가 그속에서 이루어지는 社會集團은 家族이다.
그런데 家族은 그 社會의 體系에 따라서 形態를 달리한다. 그러
나 모든 家族은 하나의 共通的인 機能을 가졌다. 그것은 자라나
는 兒童들의 社會化가 始作되는 場이며 그들이 거기에서 첫 社會

的인 經驗을 할 수 있는 集團이며 그 속에서 자라나는 兒童들의 人間性의 基本構造가 이룩되는 關連集團이다. 現代의 産業社會에서는 家族은 小家族 혹은 父母와 子女로서 構成된 2世代家族의 形態를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形態의 家族을 “核家族”이라고 한다. 그런데 人間의 社會化에 關한 研究와 關聯해서 우리는 小家族과 核家族을 區別할 必要가 있다. 核家族이란 子女들을 養育하는 父母와 아직도 社會가 그들의 教育을 爲해서 責任을 느끼지 않는 兒童들로서 構成된 家族集團이다. 小家族은 반드시 核家族과 同一한 것은 아니다. 大家族이 아니고 2世代家族이라는 點에서는 小家族과 核家族은 同一하지만 小家族안에는 이미 成長한 子女들이 있을 수 있다. 이미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을 넘어서 社會的인 作用과 教育體制의 影響 아래 있는 子女들을 말한다. 그런데 비로 核家族에서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이 進行된다. 여기에서 비로 소 하나의 生物로 出生한 存在에게 人間이 될 수 있는 可能性이 주어진다. 그는 혼자서 人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普遍的이고 必然的인 人間性의 基本構造가 다른 文化的인 社會的인 影響以前에 意圖的인 教育의 作用 以前에 이미 이루어진다. 이러한 核家族은 모든 歷史的인 家族形態들의 基本構造이다.

家族을 다른 種類의 社會集團들로부터 區別해서 第1次 集團이라고 한다. 第一次 集團과 第二次 集團의 區別은 美國의 社會學에서 一般化된 區別인데 이것은 독일의 社會學에서 通用되는 小集團과 大集團의 區別과는 一致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小集團이라는 것은 構成員들이 서로 人格的으로 face to face 連結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小集團에서는 一體感이라는

것이 可能하다. (大集團에서는 그러한 人格的인 連結이나 一体感은 없고 制度的으로 多數의 構成員들이 連結되어 있다. 第1次 集團이라는 것은 構成員들의 內的인 關係가 情緒的으로 連結되어 있는 그러한 集團이다. 모든 個人的인 人格的인 關係가 반드시 情緒的인 連結이라고 할 수는 없다. 家族에게 特有的 親密性은 이러한 情緒的인 連結에 根拠한 것이다. 親密性 때문에 家族들 사이에는 서로를 分離하고 가리우는 담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끊임 없는 계속적인 相互作用과 相互規制가 可能하다. 그리고 生生한 一体感이 可能하다. 그러므로 學校의 學級은 小集團은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70名 80名이 넘으면 個人的인 人格的인 連結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小集團이 되기도 어렵지만 어떤 境遇에도 第1次 集團이 되지는 못한다. 第1次 集團에서는 集團的인 關心이 個人的인 關心보다 優位性을 갖는다. 個人은 그의 情緒的인 連結로 因해서 그의 第1次 集團에 徹底히 依存한다. 그래서 兒童들은 父母들의 싸움으로 因해서 苦痛을 받는다. 다른 種類의 集團들에서는 個人은 언제나 一定한 情緒的인 距離를 가질 수가 있다. 勿論 第1次集團과 第2次集團의 境界는 固定的인 아니고 流動的이다. 반드시 家族이 아닌 集團도 情緒的으로 연결되고 一体感を 갖는 그러한 集團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第1次集團에서는 情緒的인 調和가 중요하고 第2次集團에서는 機能的인 調和가 重要하다. 이와같이 情緒的으로 연결되고 一体感を 느끼고 따라서 서로를 分離시키는 담이 없기 때문에 相互作用과 相互規制의 社会的인 機能이 거의 完全히 保障된 第1次集團으

로서의 核家族이 第1次社会化的 場으로서의 社会集團이다.

第1次 社会化的 過程에 對한 深層心理學的인 研究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후로이드 (Freud) 에 依하면 모든 人間은 本能的 慾求와 文化的 要請사이의 葛藤을 回避할 수가 없다. 人間の 心理的 機關들의 課題는 이러한 葛藤을 克服하는 일이다. 후로이드는 人間の 心理作用을 다음과 같은 세가지 機關들을 通해서 說明한다.

첫째로는 無意識의 機關 곧 das Es 인데 여기서는 慾望을 志向하는 本能이 支配한다. 그러나 規制되지 아니한 慾望志向은 파괴와 죽음에 이른다. 그래서 이러한 慾望志向을 規制하고 制限할 수 있는 하나의 機關이 必然적으로 요청되는데 그것이 “自我” das Ich 의 機關이다. 自我는 慾望志向 Lustprinzip 을 社会的 要請 곧 現實規制 Realitätsprinzip 와 조화시킨다. 社会的 要請은 처음에는 父母들과 다른 權威들의 命令으로서 나타난다. 자라나는 兒童들은 이러한 命令을 回避할 수 없지만 그들의 自我意識은 外部로 부터의 命令에 服從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을 苦痛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한 社会的 要請들을 規範들로서 內面化시킨다.

이렇게 해서 良心이란 機關 곧 “超我” das Uberich 가 이루어진다. 注目할 것은 후로이드에 의하면 人間の 自我도 超我 곧 良心도 社会的인 要請과의 對決을 通해서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人間은 “自我”의 機關이 너무 無力해서 本能的인 慾望과 社会的 文化的 要請을 調和시키지 못하는지 “無意識”의 機關이 너무 支配적으로 強力하든지 혹은 “超我”의 機關이 너무

嚴格하든지 또는 너무 不足하게 形成되면 社會에의 適應이나 生活環境의 創造를 爲해서 無能力하게 된다. 후로이드에 依하면 欲望에 支配當하는 人間이나 欲望을 禁欲的으로 抑壓하는 人間이 모두 病的인 人間이라는 것이다. 欲望을 實現하되 다른 人間들의 欲望도 尊重하고 社會的인 要請과 調和시키는 人間이 健全한 人間이다. 어떤 人間이 健全한 人間이냐는 물음에 후로이드는 “사랑할 줄 알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對答했는데 이것은 欲望과 社會的 要請의 調和 곧 가질 것을 가지고 줄 것을 주는 人間을 말한다.

自然的이고 本能的인 欲望과 文化的이고 社會的인 要請의 調和를 통해서 自我와 超我를 形成하면서 人間性을 發展시키는 過程은 어떤 段階들을 거치는 것일까.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은 어떤 段階들을 거치는 것인지 후로이드와 그의 弟子들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은 口腔期 肛門期 陰莖期の 3段階로 區別되는데 潛在期는 이미 第1次 社會化의 過程과 第2次 社會化의 過程을 連結하는 段階이다. 口腔期는 出生한 初年の 幼兒의 段階인데 여기서는 本能的인 欲求가 主로 口腔을 통해서 充足되는데 食欲의 對象과 性欲의 對象이 區別되지 않는다. 이 時期의 가장 重要한 關聯人物은 어머니이다. 어머니의 품속에서 幼兒는 原初的인 信賴感을 얻는다. 어머니의 품을 빼앗긴 幼兒는 信賴할 수 있는 能力을 얻지 못하고 不信感이 助長된다. 그러므로 이 時期에는 어머니의 품을 빼앗기지 않고 곧 原初的인 信賴感이 損傷當하지 않고 離乳를 하게 하는 것은 매우 重要하다. 이 時期

에 信賴할 수 있는 能力을 얻지 못하면 不信感 뿐만 아니라 人間性의 基盤으로서 病的인 無力感 虛無感 같은 것을 조성한다. 이런 것을 口腔적 悲觀主義라고 한다. 原初的인 信賴感을 잃은 不信感은 이른바 口腔的 悲觀主義 Araler Pessimismus 에 拘치지 않고 他人을 괴롭히는 快感을 느끼는 口腔的 加虐主義 Oralor Sodismus 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共同体意識이니 社會意識이니 協同精神이니 하는 것은 口腔的 樂觀主義의 原初的 信賴感에 더해서 자라 날 수 있다. 이 段階의 口腔的 樂觀主義가 뒤따르는 段階들의 發展과 잘 調和되면 그 人間은 理想과 現實을 잘 調和시킬 수 있다. 이 段階에서 이미 人格의 情緒的 基盤이 이루어진다. 原初的인 信賴感을 남겨둘 어머니와의 互相行動 곧 웃음과 表情과 動作의 交換을 통해서 他人의 行動의 規制性을 信賴할 수 있는 社會的 樂觀主義가 나타난다. 健全한 社會生活은 이러한 信賴의 基盤위에서 이루어지고 發展한다. 이러한 社會的인 樂觀主義와 論理的 樂觀主義는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곧 人間이 한번 經驗한 事實은 앞으로도 그러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論理的 樂觀主義는 智能發展의 基盤이다.

1年間의 口腔期가 지나고 第2年의 初期부터는 肛門期에 들어간다. 이 段階에서 兒童은 筋肉들 특히 肛門의 閉閉筋肉을 支配한다. 兒童은 이때에 腸管과 방광을 비우는 過程을 規制할 수 있는 能力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 손에 닿는 것을 쥐고 놓고 할 수 있는 能力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能力은 兒童의 自律

性 志向을 위해서 이바지하게 된다. 自主 自立의 精神은 이미 이 段階에서 터 잡는다. 이 時期의 關聯人物은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게 까지 擴大된다. 兒童은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互相行動을 통해서 비로소 法과 秩序의 表象을 얻게 된다.

兒童과 어머니와 아버지 3者間의 互相行動의 形勢에 따라서 매우 分명한 法과 秩序의 表象이 兒童의 人間性的 基本構造속에 터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段階에서 清潔教育이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過度하게 嚴格한 清潔教育은 兒童들에게 2重의인 바람직하지 못한 反應을 불러 이끈다. 口腔期으로 退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른스런 早熟의 狀態를 나타낼 수 있다.

바람직한 좋은 條件들 아래서 兒童은 이 段階의 末에 自立性과 自尊心의 恆久的인 感情을 얻게 된다. 만약 不利한 條件들 아래

서 이 段階의 難關과 危機가 잘 克服되지 않으면 지나친 懷疑感과 羞恥感과 強迫感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人間性的 基本構造에

뿌리 박을 수 있는 強迫感은 社會心理學的으로 말하는 獨裁的 權威主義的 性格으로 發展한다. 強迫的인 人間性은 愛情과 時間과

經濟에서 매우 인색하고 小心하다. 이러한 強迫的 性格을 “肛門的 性格” Analer Charakter 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性格이 매우 正常

的인 性格으로 받아들여지는 社會도 있다. 그러나 強迫的 性格도 口腔的 性格이라고 불리워지는 悲觀的 性格과 마찬가지로 매우 病

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段階에서는 過度하게 嚴格하지 아니한 清潔教育과 더불어 繼續的인 信賴感이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요청된

다. 지나친 清潔教育은 自立心을 害치고 原初的 信賴感이 어머니

의 神經質的인 清潔教育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健全한 自尊心을 기르지 못하고 強迫感을 터잡게 해준다.

出生後 第3年 或은 第4年이 되면 兒童은 陰莖期에 들어간다. 이 段階에서 兒童은 自我를 認識한다. 이제 兒童은 그가 어떤 人間이 되기를 願하는지를 發見해야 한다. 이 時期의 兒童에게는 父母가 매우 有能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에 父母와 같은 人間이 되기를 願한다. 이 時期에 兒童은 自由롭고 힘있게 動作을 하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해서 더 넓은 行動領域을 얻는다. 그리고 또한 言語機能이 發達해서 많은 것을 물어보고 또한 많은 것을 理解할 수 있게 된다. 言語機能과 그의 行動自由가 함께 作用해서 그의 表象의 世界가 넓혀진다. 그래서 흔히 兒童은 自身이 그리는 表象을 무서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危機를 克服하면서 兒童의 人間性의 基本構造 속에 能力과 自主성을 現實的으로 追求하는 情緒가 터잡게 된다. 이 段階에서 兒童은 性の 問題에 對해서 알고 싶어 하는 傾向이 뚜렷이 나타난다. 만약 이런 傾向을 抑壓하면 質問하고 思惟하는 勇氣와 智能을 抑壓하는 것이된다. 性の 抑壓은 罪惡感을 發展시키고 이러한 罪責感은 積極的인 行動自由를 마비시킨다. 이 時期에 兒童이 心理的으로 빠지는 難關을 후로이드는 “ 에디푸스콤플렉스 ” Oedipuskomplex 라고 했다. 男兒가 어머니와 過度하게 親密하게 連結되고 아버지에게는 嫉妬를 느끼면서 이로 因해서 罪責感과 더불어 다른 情緒的인 葛藤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女兒의 이러한 葛藤은 “ 에렉트라콤플

렉쓰 "Elektrakomplex" 라고 하는데 兒童의 이러한 콤플렉스는 精神病的인 性格을 發生시킨다. 이러한 콤플렉스의 克服이 人間性的 健全한 發展을 爲해서 매우 重要하다.

네번째 段階는 潛在期라고 한다. 潛在期가 언제부터 始作되느냐는 것은 分明히 一律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潛在期가 끝나면서 生殖腺과 같은 生理的인 特徵이 나타난다. 이 時期에 兒童은 父母의 命令을 內面化하면서 "超我" 곧 良心을 이룩한다. 그리고 男兒는 아버지 女兒는 어머니와 같은 人間이 되고 싶어 하면서 陰莖期의 콤플렉스를 克服한다. 세번째 段階까지는 關聯人物들은 父母와 兄弟 곧 家族이었는데 이제는 社会的인 環境이 擴大되어 이웃 兒童들과 사귀고 學校에 가게되고 한다. 이제는 兒童은 正當하고 價値있는 일을 배우고 다른 兒童들과 協同하는 것을 배운다. 만약 兒童이 學校入學과 擴大된 環境에 對處하기에 充分히 成熟되지 못하면 劣等意識 때문에 能力的 發展이 阻害될 수 있다.

潛在期에 들어가면서 第2次 社會化的 過程이 始作된다. 그런데 第2次 社會化的 過程은 全體的으로 그 兒童이 에디푸스의 葛藤들을 어떻게 成功的으로 克服했는지에 많이 左右된다. 口腔期에 있어서는 社会的 論理的 樂觀主義의 基盤이 되는 原初的 信賴가 人間性的 基本構造의 形成을 爲해서 매우 重要하다. 原初的 信賴가 情緒的 志向性的 方向이 決定된다. 肛門期에 있어서는 自律的인 性格과 強迫的 性格을 決定하는 訓練이 중요하다. 陰莖期에 있어서는 行動自由나 罪責感사이에 이러나는 緊張關係가 앞으로의 그

兒童의 自發性 生産性 參與意識등을 決定한다. 그리고 言語機能의 發達하면서 周圍의 事物들을 認識하게 되고 表象의 世界가 擴大된다. 潛在期에 있어서는 自尊心이 씩트게 되고 他人들과 協同하는 것을 배우면서 第2次 社會化의 過程이 始作된다. 第1次 社會化의 過程에서는 主로 人間性의 基本構造와 더불어 情緒的 志向性의 方向이 決定된다.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은 그 兒童이 어떤人間이 될 것이냐를 위해서 매우 重要한데 이 過程은 家族들 사이의 互相行動의 形勢에 의해서 決定된다. 그런데 家族들 사이의 互相行動의 形勢는 文化的 規範과 社會的 狀況에 의해서 支配된다.

2. 第2次 社會化의 過程

우리는 지금까지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을 比較的 仔細히 살펴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이 그 社會의 文化傳統 社會構造 기타 社會經濟的인 要因들에 의해서 支配되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同一한 形態의 社會構造안에서도 父母들의 子女에 對한 態度와 教育觀 그리고 家族들의 特殊한 狀況에 따라서 第1次 社會化의 過程은 달리 進行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差異는 過大評價할 것은 못된다. 우리의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到處에서 資本主義 特有한 能力의 原理를 內面化한 人間이 자라나게 되어 있다. 社會의 階層의 差異도 人間性의 構造에 반영된다. 最近 發展된 産業國家들에서 이러한 社會階層들에게 있어서 特有한 社會化의 過程에 對한 經驗的인 調查研究가 활발하다.

이러한 階層間的 差異도 相對的인 意味밖에 갖지 않는다. 우리 資本主義社會에서는 資本家들의 家族도 中流階層의 家族도 勞働者들의 家族도 모두 經濟的인 壓力에 依해서 互相行動의 形勢가 左右되고 또한 그 안에서 兒童들의 社會化의 過程이 存在된다. 資本主義 社會에서는 資本主義的 價值體系가 社會化의 過程에 支配的으로 作用한다. 그 社會의 需要와 價值體系가 人間의 社會化의 過程에 決定的으로 作用하기 때문이다.

후를 Erich Fromm 에 依하면 家族은 그 社會의 心理的인 代理者이다. 그 社會에서 支配的인 價值體系가 여기서도 支配的이다. 資本主義 特有한 社會構造의 要請과 經濟의 壓力이 兒童들의 社會化의 過程에 作用하기 위해서 父母의 同意를 必要로 하지 않는다 父母도 兒童들도 함께 그러한 要請과 壓力에 依해서 支配된다.

第1次 社會化의 場으로서의 家族은 그 社會의 文化的인 價值들을 다음 世代에 傳達하고 그 社會體制의 存続을 위해서 必要한 性格들을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社會的 文化的 價值들이라는 것은 社會적으로 認定된 그리고 文化傳統에 따라서 固有한 心理的으로 內面化된 標準들 곧 行動의 方向과 目標과 手段들의 選擇을 위한 標準들을 말한다. 價值體系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의 社會體制에 의해서 規定되고 認定된 價值들의 秩序를 말한다. 價值體系는 人間으로 하여금 그 社會안에서 自身의 位置와 行動의 方向을 잡는것을 도운다. 그것은 人間의 行動을 規制하는 하나의 司令體系의 機能을 가졌다. 價值體系는 그속에 사로 잡힌 人間들로 하여금 그

사회안에서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行動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價値體系가 閉鎖的으로 完全한 體系이어서 그 안에서 여러 價値들이 서로 矛盾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體系는 아니다. 특히 오늘날의 우리사회처럼 傳統文化를 技術文明이 壓倒하고 있는 力動的 變化의 社會에 있어서는 價値들이 서로 矛盾되고 서로 對立되는 그러한 無秩序한 體系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不調和의 價値體系가 그 社會體制를 危殆롭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욱 保存的인 機能을 발휘할 수 있다. 어떤 社會에 있어서도 調和로운 矛盾없는 價値體系는 없다. 왜냐 하면 文化的 價値들은 그들의 相互關係나 그들의 優劣秩序에 있어서 合理的으로 計劃되어서 나타나게 된 것이 아니고 歷史적으로 이룩된 範주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規範들과 行動方式 等を 통해서 그 社會構成員들의 行動方向을 規定하는 價値體系가 그 社會構造의 支配層의 人間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支配層의 人間들 사이에 이러나는 여러가지 狀況들이 價値들의 傳承과 保存에 影響을 준다. 이것은 또한 價値體系안에 나타날 수 있는 不調和의 原因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價値體系는 그 社會의 經濟構造와 互相依存關係를 갖고 있는데 이 依存關係는 매우 複雜한 性格을 가졌다.

第2次 社會化의 過程이 부디치는 難關은 人間이 異質的인 價値들을 習得하고 內面化해야 되는데 있다. 人間은 境遇에 따라서는 情緒의 흐름에 따라서 自然스럽게 行動해야 되는데 어떤 境遇에는 情緒의 흐름과는 相關없이 冷情하게 理性的으로 行動해야 한다.

人間은 共同意識에 의해서 行動을 決定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한 個人意識에 의해서 決定해야 될 때도 있다. 人間은 普遍性에 따라서 行動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한 個別性에 따라서 特殊하게 行動해야 될 때도 있다. 人間은 計算할 수 있는 特殊한 客觀的인 機能에 따라서 待遇를 받지만 때로는 그의 位置에 따라서 待遇를 받을 수도 있다. 情緒와 理性, 個人과 集團 普遍성과 特殊性 機能과 位置 그것들은 서로 對立될 수 있는 價值들이다.

第2次: 社會化的 過程을 위한 가장 重要한 場은 學校이다. 學校에서 兒童들은 家族을 떠난 社會的인 役割들과 그 役割들의 交換과 社會的인 互相行動들을 배운다. 學校의 이러한 重要한 機能을 教育學은 지금까지 거의 分析해 보거나 研究해 보지 못했다. 그것은 지금까지 教育學이 教育을 다만 意識的인 計劃的인 作用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無意識的인 作用이 人間性 形成을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意識的인 教育의 밑바탕을 이룬다. 學校에서의 第2次 社會化的 過程에 對한 教育學的 研究가 거의 없기 때문에 學校에서의 第2次 社會化는 大體로 社會體制에의 適應을 위한 訓練과 社會的 需要에 따르는 能力의 助長으로서만 作用한다. 學校에서의 第2次 社會化的 過程이 兒童들의 最善我를 實現할 수 있는 方向으로 調整되어야 한다. 勿論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學校도 그 社會構造의 一部로서 그 社會의 支配的인 價值體系의 影響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第1次 第2次 社會化的 過程을 거쳐서 眞正한 自律的인 人間이 이룩되고 人間의 그의 最善我를 實現할 수 있는 그러한 社會는 아직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經濟와 技術과 科學의 發展은 그러한 유토피아가 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第2次 社會化의 過程을 위한 가장 중요한 場은 學校라고 했는데 學校를 떠나면 人間은 本格的으로 專門적이고 多樣的 社會的 役割들을 맞게된다. 그런데 이러한 社會的인 役割들이 이제는 人間의 社會化의 過程에 크게 作用한다. 팔즌스 (Parsons)는 철저하게 役割理論에 의해서 社會化의 過程을 說明했다.

그는 人間의 社會化의 過程을 社會體系에의 同化過程으로서 빈틈 없이 組織적으로 觀察했다. 모든 役割들은 언제나 相對的인 役割들과 對應關係를 갖고 있다. 男便의 役割은 主婦의 役割과 對應關係를 갖고 있다. 父母의 役割과 子女의 役割이 對應關係를 이루고 統治者의 役割과 被統治者의 役割 그리고 生産者의 役割과 消費者의 役割이 對應關係를 갖는다. 한 工場에서는 工場長의 役割과 技術者의 役割 그리고 勞動者의 役割이 서로 對應關係를 갖는다.

모든 役割에는 그 社會構造와 文化傳統에 따라서 特有한 規範들이 따르고 이 規範들이 役割担当者들의 行動을 規制한다. 따라서 特定한 役割의 担当은 特殊한 人間性を 發展시킨다.

人間은 同時에 여러 役割들의 担当者이다. 家庭에서는 家長의 役割 學校에서는 教師의 役割 國家에서는 國民의 役割을 同一한 人間이 担当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役割들이 서로 葛藤을 이르킬 수 있다. 家長의

役割을 위해서는 当然한 行動이 教師의 役割을 위해서는 바람하지 못할 境遇가 있다.

法官의 役割에 忠實하기 위해서 自己의 子息에게 死刑을 宣告해야 될 境遇도 있다. 人生의 많은 悲劇은 役割들 사이의 葛藤에서 온다. 個人에 따라서 어느 役割을 더 所重히 여길 것인가의 差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役割들의 優先順位도 社会構造와 文化傳統에 의해서 決定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個人的인 差異는 그렇게 重要하지 않다.

오늘날 처럼 變化하는 複雜한 不透明한 社会에서는 社会的인 役割도 매우 複雜한 樣相을 띤다. 社会的인 役割의 樣相이 複雜할 뿐만 아니라 늘 變化한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人間이 役割을 担当하고 또한 새로운 役割을 担当할 可能性이 있는 限 늘 社会化의 過程은 繼續된다.

팔즌스에 의하면 그가 말하는 이른바 “對象的 体系들” Objectsystems 이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内面化됨으로서 智能과 情緒가 啓發되고 그들의 人間性이 發展한다.

팔즌스는 이러한 社会化의 過程을 다섯 段階들로 區別해서 說明했다. 처음 세 段階에 있어서는 家族이 唯一한 社会化를 위한 場이다. 그後에는 兒童들이 접촉하는 親舊들의 集團과 學校가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모든 段階들에서 各各 一定한 対象体系들이 内面

化 되는데 다음 段階로 넘어 갈 때 마다 內面化되는 対象体系들이 細分化된다. 社會化의 過程의 마지막 段階에서 他人들과의 社會的인 互相行動의 基本的인 模型을 習得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狀況에 있어서 安定된 役割行動을 可能하게 한다.

팔즌스는 構造的이고 機能的인 体系理論을 通해서 人間의 社會化의 過程을 그가 말하는 이론바 社會体系의 內面化로서 說明했다. 內面化의 過程을 說明하면서 후로이드의 精神分析學을 많이 利用했지만 후로이드의 中心問題였던 對立과 葛藤의 문제는 度外視되었다. 팔즌스는 內面化의 過程을 同化의 過程으로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人間의 人格体系는 곧 社會体系의 거울 "Mirror image" 이라고 했다. 人間은 社會의 被造物이며 社會의 거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人間의 社會化의 理論에서 政治教育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重要的 敎訓을 얻는다. 人間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은 出生後 첫해부터 始作된다는 것이고 人間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의 成敗는 얼마나 그 社會에서 不條理를 追放하고 그 社會를 合理化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II. 各國의 政治教育

1. 西 獨

西獨은 第二次 世界大戰後 東獨과 分단되면서 教育目標에 變化를 가져왔다. 이러한 變化는 部分的으로는 「바이마르」 Weimar 時代의 教育改革 思想과 연결 되는 것이 있다. 그러나 東獨이 1946年 以來 이른바 맑스·레닌 主義的 理念을 기초로 앞으로의 科學的 技術的 革命의 時代에 적응하기 위해서 就學前 兒童教育으로 부터 補充教育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教育體制를 일찌기 정비한 것에 比하여 西獨은 몇年前부터 뒤떨어졌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西獨은 教育行政權이 洲政府에 있기 때문에 中央에서 統一的인 計劃을 하기가 어려워서 1970年에 憲法을 改正해서 教育改革을 서 들고 있다.

「니더작센」洲의 教育法은 學校教育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學校는 그들에게 맡겨진 兒童들을 生活과 職業을 위해서 準備시키고 基督教과 西洋文化의 기초위에서 自主的으로 思惟하고 責任意識을 가지고 行動할 수 있는 民主的이고 社會的인 法治國家의 市民으로 育成하고 教育시킬 使命을 갖는다. 어떤 兒童이든지 不利한 社會的 條件들 때문에 教育에 支障을 받을 수 없다.”

政治教育은 「푸로이스」時代부터 政府가 直接 指導하게 되어 있다 各洲政府들에 政治教育을 위한 責任部처 Landeszentrum der Politischen Bildung이 있고 中央政府에도 이들을 통합한 部처가 있다. 이 部처는 政治教育을 위한 研究, 指導, 材料開發, 出版 등의 일을 하고 있다. 第2次 大戰後에는 主로 非나치化 教育과

民主市民教育에 重点을 두고 있으며, 祖国의 分斷으로 因해서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에도 力點을 두고 있다. 「西獨의 統一에 對備하는 教育은 자라나는 兒童들로 하여금 東獨에서 生환하는 같은 民族에게 對해서 親密感을 갖게 하고 精神的으로 연결의식을 갖고 實際的으로도 交流하게끔 하는 教育이다.」 西獨의 政治教育에서는 「이데오로기」 批判이 그렇게 重要視되고 있지 않는 代身에 民主社會에서의 政治體系에 對한 知識, 國民經濟에 對한 知識, 그리고 利害關係가 얽힌 이웃나라들에 對한 仔細한 情報의 전달등을 重要視하고 있다. 東獨에 對해서 惡感情을 갖도록 教育하는 일은 全然없고 같은 民族이라는 것을 注入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2. 「노르웨이」

1959年 4月19日에 制定된 教育法은 教育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學校의 課題는 父母와의 協力아래 兒童들을 社會共同體의 값있는 構成員이 되도록 教育하는 것이다. 學交는 兒童들에게 基督教의 이고 道德的인 教育을 하고 그들의 機能과 素質을 發展시키고 그들에게 普遍的인 敎養의 知識들을 철저히 敎育함으로서 精神的으로 肉體的으로 誠實한 人間이 되게 해야한다. ●

教育의 첫째 目的이 社會共同體의 값있는 構成員이 되도록 敎育 하는데 있다는 것은 注目할만하다. 各種 各級 學校들의 「카리큘럼」에서는 個人으로서의 兒童의 共同體안에서의 人間性發展과 더불어 能力과 知識의 意義가 강조된다. 그리고 社會的인 地理的인 環境이 兒童들의 關心의 焦點이 되게 한다. 祖國에 對한 여러가지 知識들을 이웃國家들과 世界各國에 對한 仔細하고도 客觀的

인 認識과 결부시켜서 教育하는데 力點을 둔다. 祖国의 文化的인 傳統을 자라나는 世代에 전달하고 모든 國民의 共同体意識을 길러주고 國民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明確하게 認識하게 한다.

그러면서 同時에 자라나는 兒童들로 하여금 他國民들을 尊重하고 이를 통해서 政治的인 國際的인 問題에 있어서 寬大하고 合理的인 態度를 기르게 한다.

教育의 目的은 個人的 發展을 促進할 뿐 만 아니라 文化的 傳統을 保存하고 國家社會의 發展에 이바지 해야 된다. 民主主義的으로 教育한다는 것은 他人들을 尊重하고 共同体意識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3. 「스웨덴」

「스웨덴」이 1962년에 制定된 教育法은 모든 學校들을 위해서 共通的인 教育目的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 兒童들과 靑少年들에 對한 社會的인 教育의 目的은 그들로 하여금 知識과 技術을 習得하게 하고 父母와의 協力아래 자라나는 兒童들을 調和로운 人格으로 그리고 社會의 有能한 構成員으로 發展시키는데 있다. 무엇보다도 社會的인 責任을 意識하는 人間을 教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특히 義務教育을 위한 學校들은 父母와의 協力아래 兒童들의 全面的 發展을 促進시키는 것을 教育目的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兒童들에게 知識과 技術을 習得케 한다. 學校의 課題는 兒童들의 人間性의 어떤 一面만을 助長하지 않고 全面的인 發展을 圖謀하게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行動方式을 安定시키고 人間教育을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注目할 것은 ● 人間의

全面的 發展 / Die Allseitige Entwicklung des menschen이라는 「맑스」 Marx의 教育理念이 그 表現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스웨덴」은 自由世界에 속했으면서도 社会党이 長期執權을 하고 있기 때문에 教育을 위해서는 共產世界와 自由世界에서 모두 長點들을 取하고 있다.

앞으로의 産業革命의 時代에 對備하기 위한 教育体制의 合理化와 教育力量의 極大化에 있어서도 「스웨덴」은 世界的으로 가장 發展한 國家이다. 政權安定과 經濟發展에 의해서 뒷바침된 教育改革도 研究期, 實驗期, 實現期를 거쳐서 이제는 世界的인 모범國가가 되었다. 社会党的 長期執權과 地政學的 條件등으로 因해서 「스웨덴」의 政治教育은 社会主義 教育의 傾向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4. 「덴마크」

1958년에 制定된 教育法과 同 施行令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새로운 教育体制은 最近의 技術的 社会的 國際的 發展을 土臺로 한 다음 世代에 對한 要請을 반영한 教育体制이다.

義務教育을 위한 學校들의 教育目的은 文敎部에서 發行한 教育手帖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表現되고 있다.

教育內容 곧 「카리큘럼」은 可及的 兒童들의 要請과 能力에 적응해야 된다. 教育은 知識과 能力을 蓄積하는 것이라고 理解되기 보다는 스스로 배우고 他人들과 교제하고 他人들의 問題들을 위해서 함께 念慮하고 協同하는 能力을 길러주는 것이다.

文化的인 倫理的인 精神的인 價値들의 教育에 力點을 두고 特別
「카리큘럼」의 制定에 있어서는 社會共同體의 經濟的인 社會的인
發展을 目標로 해야된다.

過重한 「카리큘럼」은 可能한 限 回避되어야 한다. 從來 가르
쳐왔다는 隨性的인 理由로 保存되고 있는 教科는 可能한 限 削除
되어야 한다. 낡은 教課들의 削除를 통해서만 學校教育은 科學
的인 技術的인 急速한 發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變化에 適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從來의 試驗制度和 選擇制度는 兒童들에게 過重한 負擔이 된다.
그래서 다른 評價方法을 適用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兒童들을 知識
에 의해서만 評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人間性的인 發展程度에 따라
서 評價하도록 해야된다.

兒童들을 國家社會의 發展을 위해서 教育할 뿐 만 아니라 國際
的인 問題들에 대한 理解를 增進시키고 國際的인 協力의 必要性을
認識하게 한다.

이와 같이 「덴마크」는 教育體制의 現代化와 더불어 國民教育과
國際協力を 위한 教育으로서의 政治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다.

5. 「스위스」

「제네바」 行政區의 教育法에는 學校教育의 目的을 다음과 같
이 提示하고 있다.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祖國에 奉仕할 수 있는 能力을 길러준다.

교육을 통해서 祖國에 대한 사랑과 祖國의 모든 機關들을 尊重하는 마음을 길러준다.

교육은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祖國을 위해서 奉仕하는 必要한 精神的인 職業的인 知識들을 習得하게 하고 그들의 肉體的인 發展과 人間性的인 發展에 이바지케 한다.

교육은 자라나는 兒童들로 하여금 家庭을 尊重하게 하고 父母의 法的인 權威를 支援한다. 父母는 또한 學校와의 協力아래 兒童들로 하여금 學校의 秩序를 지키고 學習을 誠實하게 하도록 도운다.

以上과 같은 教育目的에 대한 規定들이 모든 教育政策들과 教育法과 그 施行令들이 나타나 있다. 「베른」 Bern 行政区의 初等教育法에는 教育에 대한 基督敎的인 責任이 強調되어 있고 神에 대한 敬畏心을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베른」은 保守的이고 傳統的인 性格이 강한 行政区이다. 그러나 「제네바」行政区의 教育法은 敎會와 國家의 分離의 原則위에서 制定된 것이기 때문에 國家化의 傾向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中央集權的인 「제네바」行政区의 性格과 가까운 「프랑스」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19世紀에는 모든 行政区들의 初等教育에서 民主主義를 위한 政治教育이 強調되었었다. 그러나 그동안 科學의 發展과 知識들의 폭발적인 增大 때문에 政治教育은 多少 等閑視되었다가 最近에는 다시 補強되게 되었다. 자라나는 靑少年들에게 社會에 對해서 責任感을 느끼고 國際的인 相互理解의 精神을 갖도록 教育하려고 하고 있다.

· 6. 英 國

英國의 法典에는 教育의 目的에 關해서 다음과 같이 規定되어 있다.

- 1) 父母는 그들의 兒童들을 年令과 素質에 따라서 教育시킬 義務를 갖는다.
- 2) 公教育을 위한 學校들을 知性的, 倫理的, 宗教的, 肉體的 發展을 도와야 한다.
- 3) 合理的인 教育體制와 經濟性에 違背되지 않는限 兒童들을 父母들의 希望대로 教育시킬 수 있다.

英國의 學校들은 一般的으로 知識을 배우는 機關이라기 보다는 生活共同體들이라고 할수 있다. 왜냐하면 學習以外的 여러 가지 行事들이 學校를 中心으로 마련될 뿐만 아니라 餘暇善用을 위한 풍부한 「프로그램」들이 學校에서 계획된다. 그뿐만 아니라 學校에서 兒童들에게 食事を 마련하고 共同食事を 하게 하도록 法律적으로 規定되어 있다. 經濟적으로 어려운 兒童들은 無料로 食事を 할수 있게 되어있다. 公教育을 위한 學校들의 이러한 性格을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共同體意識을 길러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것은 教育目的에 明文化된 어떤 条文보다도 더 훌륭한

政治教育의 效果를 나타낸다.

7. 「포르투갈」(Portugal)

「포르투갈」의 憲法 43 조에는 教育의 目的이 다음과 같이 規定되어 있다.

“國家에 의해서 規制되는 公教育은 兒童들의 肉體的인, 知識的인 發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人間性을 育成하고 職業生活을 위해서 準備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道德的인, 國民的인 性格을 도야시켜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르투갈」의 傳統的인 宗教와 道德의 原理를 習得하게 한다.”

「포르투갈」은 그들의 傳統的인 倫理의 教育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政治教育을 통해서 政治的이고, 社會的이고, 協同的인 共同生活의 基本原理를 자라나는 兒童들에게 認識시키고 自然스러운 「포르투갈」의 愛國心を 길러 주려고 한다. 그리고 특히 “海外에 대한 理解(Sentiment d' Outremer)를 증진시키려고 한다. 大體로는 大學教育 以前에는 하나의 課目으로서의 體系的인 政治教育은 없으나 例外로서 人文高等學校의 上級班에서는 將來의 指導者들이 될 兒童들에게 “國家의 政治的, 行政的 組織이라는 課目으로 理念的인 教育을 한다.

8. 「회 랍」

「회 랍」에서는 「발칸」(Balkan) 戦争 以後 그들의 教育体制을 合理的으로 정비하려는 教育改革運動이 일어났지만 軍事的인, 政治的인 不安때문에 實現되지 못하고 1929 年에 비로소 學校改革이 이루어졌다. 1927 年에 制定된 憲法에 의해서 6 年間的 義務教育이 實施되게 되었다. 그後 1937 年의 改革과 1943 年의 改革을 거쳐서 現在로는 初等 6 年間, 中等 6 年間的 教育이 一般教育을 위해서 實施되고 있다. 教育의 機會均等과 無償教育을 國家의 教育 政策으로 삼고 있다. 教育의 目的은 兒童들을 道德的으로 精神的으로 發展시키고 「회 랍」의이고 基督敎的인 文明의 전통위에 철저한 國家意識과 愛國心을 길러 주려고 하고 있다.

「회 랍」에서는 특히 就學前 兒童教育에서부터 道德的이고 社會的인 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初等教育에서도 國民으로서의 質의 教育을 教育目的의 첫머리에 내걸고 있다.

9. 「터 키」(Türkei)

文化的으로 혹은 地理的으로 東洋과 西洋의 中間에 位置한 「터 키」는 愛國的인 國民教育을 가장 두렷하게 포방하는 나라이다.

모든 教育은 「터키」共和國이 民主的이고 社会的인 法治國家라는 것을 認識하고 人權을 존중하는 法治國家로서의 「터키」의 國民으로서의 긍지를 느끼면서 責任을 다할 줄 아는 人間을 기른다고 教育目的을 規定하고 있다. 家族이 「터키」社會의 基本單位라는 것을 認識하고 國家의 法律과 秩序를 지키고 現在의 狀況을 끊임없이 改善하려고 努力하는 人間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國家의 利益을 個人의 利益보다 앞세우고 이러한 態度로 職業生活을 하도록 教育한다는 것이다. 教育目的의 이러한 規定들은 얼마나 그들이 愛國的인 國民教育에 力點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960 年以來 「터키」는 計劃經濟體制下에서 높은 經濟成長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터키」는 國家發展을 든든한 基礎위에서 이룩하기 위해서 첫 5 個年計劃의 期間에 國家財政의 거의 71 %를 教育에 投資했다. 「터키」의 教育體制는 이미 1924 年 3 月 3 日에 制定된 法律에 의해서 改革整備되고 科學的인 基礎위에서 統一的인 「카리큘럼」과 教授方法이 마련되었다. 「터키」는 國家發展이 科學教育과 技術의 發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政治教育을 위한 時間表

西 獨

初等教育에서는 郷土學(Heimatkunde)이라는 이름으로 每學年마다 每週 4 時間(Grundschule-Bayern에서)

中等教育에서는 政治教育이라는 이름으로 每學年마다 每週 2 時間乃至 3 時間(Realschule-Hasssen)

[노르웨이]

初等教育 3 年間은 每週 3 時間을 郷土學의 이름으로 實施하고
後半 3 年間은 每週 2 時間을 國史 社會生活이라는 이름으로 實施한다.
(Barveskole)

中等教育에서는 社會生活이라는 이름으로 每週 4 時間乃至 5 時間
(Ungdomsskole)

[스웨덴]

初等教育에서는 3 學年까지는 社會生活이라는 이름으로 每週
3 時間乃至 5 時間이고 4 學年부터 6 學年까지 國民生活이라는 이름으로
每週 6 時間

中等教育에서는 國民生活이라는 이름으로 每學年 每週 2 時間

「 덴마크 」

綜合學校 7年間은 宗教의 이름으로 每週 2時間 3學年부터
5年間은 歷史의 이름으로 每週 1時間乃至2時間 그리고 8學年
9學年の 2年間은 共同體生活이라는 이름의 科目으로 1時間乃至
2時間

「 스위스 」

初等教育에서는 道德이라는 이름의 科目으로 6年間 每週 2時間
間(Zürich)

中等教育에서도 亦是 道德이라는 이름으로 每週 2時間(Zürich)

「 포르투갈 」

初等教育에서 宗教와 道德이라는 이름으로 2時間 혹은 1時間

「 회 략 」

初等教育에서는 6年間 宗教라는 이름의 科目으로 每週 2時間
5學年과 6學年에서는 그위에 社會生活이라는 이름으로 每週
1時間

「 터 키 」

初等教育에서는 5年間 共同生活이라는 科目으로 每週
6時間
中等教育에서는 社會生活이라는 科目으로 3年間 每週
1時間

10. 中 共

中共은 大陸을 占領한 后에 <政治協商會議>綱領을 通하여, 中華人民共和國의 文化教育은 新民主主義의, 즉 民族的, 科學的, 大衆的인 文化 教育으로 하고, 人民 政府의 文化教育 事業은 人民 文化의 水準을 提高시키고, 國家 建設 人材를 培養시키고, 封建的 剝削的 「팻소」주의적인 思想을 肅清하여, 人民을 위하여 服務하는 思想을 發揚시키는 것을 主要 任務로 한다, 고 教育의 基本立場을 闡明하고 1951年 以後 次第에 걸친 教育 改革을 斷行 하였다. 中共의 教育改革의 特徵을 段階別로 提示한다.

1) 第1段階(1949 ~ 1957): 蘇聯의 模倣期

教育制度, 內容, 方法 等 一切를 蘇聯의 그것을 模倣하여 改革을 斷行하였다. 1950年 6月 1日 中共이 開催한 <全國高等 教育會議>에서 當時의 教育部長 馬叙倫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相當한 事業 經驗과 學術的 基礎를 具備한 「인텔리」들을 計劃的으로 外國에 보내어 特別히 蘇聯과 東歐羅巴의 新民主主義 國家의 建設 經驗을 깊고 切實하게 吸收시켜 우리들의 一部高級 教師의 資質을 培養해야 한다. ……우리는 蘇聯 高等教育 機關의 教科書를 大量으로 翻譯하여 우리들의 主要 參考 資料로 삼아야 한다」

教育部 副部長 錢俊瑞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蘇聯 사람들이 걸었던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이미 歷史가 證明한 뒤집을 수 없는 眞理이다……그러므로 蘇聯의 經驗을

우리는 절대 學習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그 무슨 中國의 것은 모두 좋고 外國의 모든 것은 안된다는 國粹主義를 反對한다. 지금 우리들이 各 大學에서 소련의 教科書와 各種 教材를 많이 참고토록 提起한 原因은 여기에 있다. 소련은 이미 「브르조아지」의 文化를 消化 改造하여 그 精粹를 받아 드리고 껍데기를 버리는 이 어려운 事業을 이미 많이 進行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용담이를 따라가 받아 와야 한다.

이와 같이 中共은 모든 것을 蘇聯에 依存하여 教育體制를 整備할 것을 宣言하고 1951년에는 全面的인 學制 改革과 教科書 改革을 斷行 하였다.

中共은 1957년까지 무려 7千名 이상의 專門家를 蘇聯에 派遣하여 教育改革을 위한 準備 學習을 하도록 措置하였다.

1951年 改革의 特徵은 다음과 같다.

첫째, 強力한 中共集權的 教育行政制度의 樹立이 그 特徵이다. 全体主義나 모든 共產主義 國家에서 共通的인 것은 強力한 中央集權的 制度를 樹立하고 있다는 것이다. 中央 集權 制度만이 가장 効果的으로 國家가 教育을 統制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共은 大陸에 共產主義라는 새로운 그들의 政治體制를 뿌리박기 위하여 教育의 重要함을 認識 하였다. 그리하여 中共은 蘇聯을 따라 強力한 中央 集權的 教育行政 制度를 樹立하고 教育을 通하여 그들의 共產 政治를 合理化하고 宣傳하기 始作 하였다.

둘째, 教育行政의 二元化를 기한 것이다. 1952年 中共은 中央教育部와 高等教育部로 中央教育行政 體系를 区分하고 高等教育部는

國家 工業化의 要求에 應하여 技術者를 養成하는 教育을 전담하고, 中央教育部는 광범한 人민의 文化水準을 提고 시키기 위한 教育을 전담케 하였다.

세째, 모든 教育行政 機關 및 教育機關을 黨이 감독 하도록 하였다. 教育을 通하여 強力한 共產化를 實現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다.

2) 才 2 段階 (1958 ~ 1960) : 三面紅旗時代

中共은 1958年 9月 <教育事業에 관한 指示>를 發表하고 教育 改革을 斷行하였다. 이때의 改革의 焦點은 政治와 教育을 強力히 結合시켜 教育에서 政治思想 教化 作業을 強化하자는 것과 教育과 生産을 結合시켜 生産과 直結되는 技術, 勞働의 習得을 위해 教育이 더욱 貢獻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教育改革을 斷行하게 된 原因은 첫째, 當時 中。 諫間に 틈 생기자 自力更生의 手段으로 소련식에서 脫皮하여 보자는 것이요. 둘째, 낮은 「인테리」層이 教育界의 責任者로 大部分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獨裁에 威脅을 느낀 것이고, 세째, 이미 始作된 <三面紅旗> 運動 步調를 맞추기 위하여 早速하고 大量的인 教育으로 發展시킨다는 것이다.

教育行政面에서 改革의 特徵은 첫째, 行政權이 下級 機關으로 大幅 移轉된 것이고 둘째, 高等教育部가 廢止되어 教育行政 體系가 一元化된 것이고 세째, 黨委員會가 教育을 掌握한 것이다.

3) 才3 段階 (1960 ~ 1963) : 調整段階

<教育 大躍進> 運動으로 惹起한 混亂과 教育 不在의 狀態를 挽回하기 위하여 一聯의 措置를 取한 것이다. 中共은 調整, 鞏固, 忠實, 提高의 八字方針은 提示하고 教育面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遂行하였다.

- ① 學校는 學生을 가르치는 것을 위주로 한다.
- ② 學生은 冊을 읽는 것을 위주로 한다.
- ③ 教師는 主導的 役割을 맡아야 한다.

以上과 같이 強調하고 人材 輩出과 科學 發展을 中心으로 教育의 役割 中點을 두게 하였다.

따라서 一般科目에서 政治 科目과 勞動 科目을 줄이고 基礎 學問과 專門科目에 比重을 높이게 되었다.

4) 才4 段階 (1964 ~ 現在) : 文化革命

1964年 2月 毛沢東의 <教育事業에 관한 春季 指示>에 依하여 始作되었으나 1966年 8月 中共黨 才8期 才11次 全員會議에서 毛沢東이 提起한 <文化 大革命에 관한 16條 決定>이 採択되자 本格화된 教育改革이 才4段階의 改革이다.

<文化 大革命에 관한 16條 決定>은 教育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남은 教育制度를 改革하고 남은 教育方針과 方法을 改革하는 것은 이번 프로레타리아 文化 大革命의 極히 重要한 任務이다. 學制는 短縮 되어야 하고, 教科課程도 簡素化 되어야 하고 教材도 徹底히 改革해야 한다. 學生은 學問을 배울 뿐만 아니라 工業도

배우고 農業도 배우고, 軍事訓練을 배우고 또한 隨時로 「브르코아지」를 批評하는 文化大革命에 參加해야 한다.

以上과 같은 指針에 依拠하여 1967年 1月 中國 共產黨 中央 委員이 提示한 具體的인 改革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考試 制度의 廢止, 둘째, 學制의 短縮, 셋째, 階級 路線의 強調, 넷째, 半讀 半晨(江)의 教育制度의 加速的 樹立 推進, 다섯째, 學校의 軍事化를 全面的으로 實施, 여섯째, 政治에 依한 教育의 統率을 強調, 일곱째, 毛沢東 思想의 學習 強調.

中共은 이와 같은 改革을 通하여 政治思想 教育을 強化하여 毛沢東 思想을 부식 시키는 데 專念하였다. 實際 教材編纂과 內容의 一般原則을 보면 中共의 政治思想 教育 改革의 方向이 集約的으로 表現된다.

教材編纂 및 內容 選定의 一般原則은 다음과 같다.

① 「프로테타라아」 政治를 強調하고 毛沢東 思想으로 教材를 統御한다.

② 理論과 實際를 連繫시키고 教育을 <三大 文化 革命>運動과 密接히 연계시킨다.

③ 教材의 內容을 적게 精密하게 精髓를 들어잡아 쉽게 배우고 쉽게 理解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中·小學校의 教科 內容은 다음과 같이 3領域으로 区分된다.

① 毛沢東 思想 教育

② 社會主義 文化 知識 教育

③ 軍事 體育 教育

11. 蘇 聯

蘇聯의 教育은 黨과 國家의 目的 實踐을 위한 手段으로 重要視 된다. 共產國家가 모두 그러하듯이 소련에서도 政治 思想 教育은 大端히 큰 比重을 차지한다. 소련 政治教育의 方向의 特徵을 몇가지 指摘해 본다.

첫째, 소련의 政治教育은 唯物論的 世界觀과 集團主義에 對한 強調에서 出發한다. 社會를 하나의 有機體로 보고 個人은 그 有機體속의 一部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國家 社會에서 이탈되는 個人은 容納될 수 없다. 個人은 오직 集團속에서만 完全해질 수 있고, 意味가 있다는 생각을 注入하려고 소련 教育은 노력한다. 그리고 物質만이 確實한 客體이며 科學의 對象이 된다는 唯物論을 強調한다.

둘째, 소련은 모든 學生을 共和國의 戰士, 開拓者, 武士, 革命家로 訓練하려고 한다.

소련의 學校機能이란 그들의 定義에 따르면

『아동들의 마음속에 共產主義 道德과 「이데오르기」 및 「소비에트」에 對한 애국심을 發展시키는 것과 「소비에트」 祖國과 共產黨과 그 지도자에 對한 영원한 사상을 고취 시키며, 過激 主義者를 褫離 形成하고 無神論的이며 國際主義的인 教育을 強調하며, 遊境과 싸우고 장애물을 정복할 능력 뿐만 아니라 과학주의자적인 意志力과 性格을 強化 하며 自制力을 기르고 物質文化를 獎勵하는

것 이라고 한다.

蘇聯의 敎育은 共產主義的 革命鬪士를 기르기 위하여 敎育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비판장으로 만들고 政治의 선전 선동으로서 最大限 活用할 것을 勸奨한다.

세째, 行政体系를 強力히 中央 集權化함으로써 敎育을 完全히 國家 政治 權力의 손에 틀어 쥐고 있다. 이것은 敎育을 통하여 政治權力을 合理化하고 妥當化하며, 國家 目的 追求에 알맞는 人間 形成을 하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

네째, 소련 政治敎育의 한 方向은 勞働敎育을 強調하는 데 있다. 蘇聯은 學校와 農村, 工場村을 連結시켜 直接 生産을 提高할 수 있는 勞働技術 敎育을 追求하고 있다.

소련에서 敎員은 높이 우대되며 그 양성은 國家의 대단한 배려와 감독속에서 이루어 진다. 가냘은 共產 政治体制을 국민으로 하여금 지지하게 하고 發展에 貢獻토록 하는 데 敎師의 役割이 至大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敎師 양성에서 Marx-Lenin의 立場에서 본 社会科学의 研究는 必須 履修 科目이다. 敎師 自身이 먼저 Marx-Lenin주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소련은 敎師양성에 있어서 정치敎育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12. 自由中國

自由中國의 政治敎育은 크게 國民思想 敎育과 國民保防敎育으로 区分하여 考察하는 것이 便利하다.

먼저 國民思想 敎育부터 考察한다.

自由中國은 學校教育을 通하여 中國의 傳統 思想을 심어주려고 하였다. 國民學校에서는 <生活과 倫理>, 中・高等學校에서는 <公民과 道德>, <三民主義>, 大學에서는 <國父思想>이란 科目을 通하여 中國의 傳統 思想을 심어주고 同時에 이러한 傳統 文化를 破壞하고 있는 共產主義를 反對토록 思想 武裝을 시키고 있다.

1967年 以後 自由中國은 <中華文化 復興節 宣傳 綱要>라는 法을 公布하면서 부터 思想教育을 더욱 強化 하였다.

蔣介石은 <中華文化 復興節 宣傳 綱要>을 發表하면서 談話文을 通하여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오늘날 毛沢東을 頭目으로 하는 共產主義者들이 中國의 5千年 傳統 文化를 破壞 하였다. 우리는 自由 對 極權, 文化 對 野蠻, 道德 對 罪惡, 興明 對 暗黒, 人法 對 獸法에 對한 鬭爭을 展開 하여 最後의 勝利를 爭取 하여야 한다』

이것은 傳統思想과 反共思想을 強調한 것으로 集約된다.

다음은 <國民 保防 教育>에 對하여 알아 본다.

國民 保防 教育은 教育 및 訓練을 通하여 全國民에게 反共意識을 鼓吹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그 教育內容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孫文 遺教의 實行
- ② 總統 訓詞에 對한 研說
- ③ 革命 建國 思想의 鼓吹
- ④ 反共 復國 信念의 唱達
- ⑤ 民主・共產主義의 比較

以上과 같은 내용은 <反共 救国 青年团>의 行軍 및 教育을 通하여 一般 青年들에게 伝授된다.

學生들에 對한 保防 教育은 嚴格히 選拔 教育된 訓導敎官에 依하여 실시된다. 訓導敎官이 되려면 <敎育部>, <國防部>, <三軍 總司令部> 合同으로 構成된 <軍訓敎官 選拔 小組>에서 부과하는 筆記試驗, 口頭試驗, 實技試驗, 思想 調查 等に 合格하고 三軍參謀大學, 三軍聯合大學, 國防研究院 等に 入校하여 一定 期間 教育을 마쳐야 한다.

學生들에 對한 保防教育은 訓導敎育과 軍事訓練으로 区分된다.

첫째, 訓導敎育은 民族思想의 鼓吹, 國家觀의 確立에 그 目的이 있다. 訓導敎育은 <四維八德>을 中心으로 道德敎育을 실시한다. 이러한 敎育을 위해서 初等學校에서는 165種에 達하는 中華兒童叢書를 中級, 高級으로 나누어 年間 200만부 以上 發刊하여 無料로 배부하고 아동들로 하여금 읽고 報告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中·高等學校에서는 이와 같은 初等學校 敎育의 基礎위에 大學, 論語, 中庸, 孟子(四書) 등에서 選定한 內容과 <三民主義> <總統 訓詞의 解說>等을 가르치고 있다. 이와 같은 內容을 가지고 各級學校別로 지도敎사 책임하에 通常的인 評価會를 週 1回씩 열어서 敎育의 成果를 反省케 하고 있다.

둘째, 學校 軍事訓練은 文武合一, 德術兼備의 目的아래 高等學校와 大學에서 <學生軍事管理實施法>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國防과 敎育의 結合을 시도한 것이다.

高等學生의 경우에는 군사훈련(基本訓練 및 射擊訓練), 군사

基本 科目, 兵役法, 軍事体制을 가르치고 女學生에게는 射擊訓練 등
이 除外 되는 대신 看護訓練, 社會環境 衛生 등이 教育된다.

大學生의 경우에는 1~2 學年에서는 軍事學, 國防常識, 戰地政務,
參謀技術學, 指揮官 要則 等 將校 教育理論에 置重하고 3~4 學年
에서는 集中 野營 訓練과 함께 <青年의 使命>, <愛國精神>,
<共匪禍國史> 등의 精神教育도 아울러 실시 한다.

VI . 結 論

여기에서는 各國의 政治教育에 對한 特徵이나 動向에 對하여 要約하고 우리 政治教育 改善에 必要한 提言을 한다.

1 . 各國의 政治教育 傾向

政治教育의 形態나 方法에 있어서는 各國이 多樣하다. 대개의 境遇 蘇聯을 위시한 共產國家에 있어서는 모든 教育이 政治教育의 形態로서 이루어 진다. 反面에 美國을 위시한 自由陣營 國家에서는 社會科를 中心으로 一般教育의 一部分으로서 政治教育이 強調된다. 自由中國과 같은 나라는 反共을 위한 政治教育을 모든 教育에서 相當히 높은 比重으로 強調하고 있다. 그러나 西獨과 같은 境遇는 自由中國과 같은 分斷國이면서도 自由中國이나 韓國보다는 덜 反共을 強調하는 것 같다. 이것은 歷史 文化的 背景이 다르기 때문이며, 西獨의 政治教育은 한국이나 自由中國에 比하여 相當히 다른 點이 있다.

政治教育은 크게는 民主主義 國家群과 共產主義 國家群間에 있어서 內容과 形態의 큰 差異가 있다. 그리고 民主主義 國家에서도 國家마다 많은 差異가 있다. 그러나 各國의 共通的인 特徵이나 方向을 찾을 수 있다. 各國 政治教育의 特徵이나 動向은 다음과 같이 要的된다.

(1) 民族意識, 國家意識을 부식시키는 方向으로 政治教育이 強調된다.

教育이 國家로 부터 自由放任 狀態에 있던 時代에는 거의 政治教育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現代 國家에 있어서 政治는 여러 가지 理由로 教育을 統制하기 始作하면서 教育을 通하여 國家目的을 實現하려고 努力하였다.

共產主義나 全体主義 國家에서는 國家와 民族앞에 服從하는 個人을 만들기 위하여 政治教育을 通하여 國家는 完全한 것이고 全体이며, 普遍的인 意志 (Universal will)을 갖는 것이므로 그 一部에 지나지 않는 個人은 國家에 對하여 절대 服從 忠誠하는 것만이 美德이라고 合理化 하는 傾向이 있다. 勿論 이러한 傾向은 共產主義 國家들에 있어서 共通的이나 다소 強調의 差異는 드러난다.

國家와 民族을 내세워 獨裁政權을 合理化하는 것이 共產主義의 政治教育 傾向이다.

新生 後進國에서는 지나치게 民族意識이나 國家意識을 強調하는 나머지 國粹的 國家主義 (Nationalism)로 흘러가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西獨, 自由中國 같은 分斷國들은 反共和 同時에 共產治下에 있는 同胞들에 對하여도 언젠가는 再結合해야 할 같은 民族이라는 認識을 부식시키는 方向으로 政治教育을 強調하고 있다.

2) 個人的인 倫理의 強調에서 國家的인 生活 倫理를 強調하는 方向으로 政治教育이 나아가고 있다.

大部分의 自由民主主義 國家에서는 教育에 對하여 補充主義의 立場을 取한다.

私學制度를 認定하여 個人들의 要求에 알맞는 教育받을 權利을 國民들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私學을 支援하고 私學의 自律的 運

營을 認定한다. 따라서 學校는 個人들이 要求하는 生活倫理 教育에 力點을 두게 된다. 그러나 教育의 自由放任으로 因하여 國民들의 教育機 不均等 現象等. 私學制度로 부터 오는 矛盾을 補充하고 國民 普通教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國家는 積極的으로 教育을 統制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점차 國家는 國民의 結束, 國民思想의 統一, 國家 發展의 目的을 教育속에서 達成하고자 積極的으로 教育을 統制하게 되었다. 높은 次元에서 教育의 目的과 國家의 目的은 同一視된다. 한마디로 國家의 生活의 倫理을 教育을 通하여 達成하려고 하는 것이 最近 世界 各國의 傾向이다. 美國은 世界 여러 民族이 모인 國家이지만 教育을 通하여 美國人化합으로 國民의 思想의 統一, 團結에 成功하고 있는 例이다. 그런데, 新生後進國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國家 生活 倫理의 強調를 앞세워 獨裁政權을 合理化하고 國民들에게 服從의 美德만을 強要하는 方向으로 政治教育이 誤導되는 境遇도 흔히 있는 傾向이다.

共產主義 國家는 말할것도 없이 國家의 集團 倫理에 알맞는 人間 造形이 절대시 되어 있다. 따라서 共產國家에 있어서 政治教育은 個人들의 私生活까지 조직에 묶어 統制하는 傾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3) 國防思想을 鼓吹하는 方向으로 政治教育이 나아가고 있다.

1957年 소련의 <스프르닉>이 발사되자 美國은 이에 크게 충격을 받고 1960年경 國家 안전을 위한 국방 教育 강화를 서둘렀다. 미국 뿐만 아니라 特別 分斷國을 위시한 大部分의 國家들이 國防思想 鼓吹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軍事教育, 軍事訓練까지도 自由中国 「이스라엘」等에서는 실시하고 있다.

共產國家에서는 전국민을 혁명투쟁의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軍事訓練을 大部分 國家들이 當然하게 採擇하고 있다.

4) 政治教育은 非民主的 傳統의 改革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後進國들의 大部分을 迷信的, 非科學的인 風俗, 習慣, 傳統이 國家의 政治 發展 및 經濟 發展에 크게 障礙가 되고 있음을 認定한다. 이같은 非民主的, 非科學的인 傳統의 打破를 위해 政治教育을 利用하는 傾向으로 나아가는 것이 後進國들의 一般的 傾向이다.

5) 政治教育은 國家의 經濟發展 및 政治發展을 위한 國民의 使命感을 鼓吹하는 方向으로 強調된다.

大部分의 近代國家는 個人的 富의 축적과 發展이 곧 國家의 發展과 完全一致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近代國家는 所得의 均等한 分配과 全體國民 富의 增加, 全體 國家 秩序의 確立에 많은 신경을 쓴다.

後進國의 경우 발전할 수 있는 可能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國民들의 非發展的인 價值觀과 使命感의 衰退으로 國家 발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많은 學者들에 依해 지적된 사실이다. 大部分의 民主國家에서는 均衡있는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을 위해 政治教育을 통해 國民의 責任과 使命感을 鼓吹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責任과 使命感이 일찍부터 그리고 지나치게 강조되어왔던 것이

共産國家들이다.

5) 政治敎育은 敎育行政體系의 中央集權化를 要求하는 傾向이 있다.

大部分의 自由 國家에서는 敎育에 對한 補充主義의 立場을 取하기 때문에 敎育을 地方에 거의 위임, 또는 私學에 委任하고 있다. 그러나 近代 國家에 이르자 敎育의 國家的 統制의 必要性이 高조되었다. 따라서 大部分의 國家들은 敎育에 對한 國家의 統制를 擴大하기 위하여 敎育行政의 權限을 國家에서 많이 行使하려는 傾向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國, 英國, 等이 그 좋은 例이다.

6) 政治敎育은 自國이 採擇한 政治體制의 優越性에 對한 強調에서 反對되는 政治體制에 對한 批判도 강조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다.

近代國家들은 自國의 政治體制에 對한 이해만으로는 國民의 思想 總化를 充分히 기할 수 없음을 認識하고 다른 나라 내지는 反對되는 나라의 政治體制까지 批判시키는 方向으로 政治敎育을 強調하고 있다.

2. 提 言

여기에서는 各國의 政治敎育에 對한 最近의 方向을 土臺로 우리 政治敎育 改善에 必要한 提言을 한다.

(1) 民族 意識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政治敎育 內容을 改善한다.

北韓 住民도 우리와 같은 民族임을 國民들이 망각하지 않게 해

야 한다. 北韓 住民들에 對한 적대감이나 증오감 보다는 친근감과 同情어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異質化된 同族에 對하여 排他的이기 보다는 同化시키고 吸收시키려는 態度를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民族意識도 歴史的인 傳統속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的 側面, 心理的 側面, 철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으로 綜合적으로 發굴된 民族意識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北韓 同胞와 相通될 수 있는 民族意識도 強調해야 한다.

2) 國家意識을 強調하는 方向으로 政治敎育 內容이 개선 되어야 한다.

國家意識은 民族意識과 결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民族意識과 國家意識이 거의 동일시 된다. 왜냐하면 단일 民族이기 때문이다. 國家의 安全保障 없이 個人의 자유와 權利는 보장 될 수 없다. 國際社會의 조류는 國家間의 치열한 存亡의 경쟁과 協同을 낳고 있다. 個人과 國家間의 心理的 거리를 좁히는 일은 國家發展과 個人 發展을 위해 重要하다. 國民 各쪽가 國家에 對하여 自己 同一性을 갖는 것은 國家의 團結과 發展에 重要한 原動力이 된다.

3) 우리의 政治敎育은 個人倫理 뿐만아니라 國家的인 生活 倫理도 強調해야 한다. 愛國 愛族, 公衆道德, 社會的 行擧 參與, 國際社會의 禮儀等 國家生活에 對한 倫理는 最近 各國에서 많이 強調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要求되는 內容이다.

4) 國防思想의 鼓吹는 우리나라 政治敎育에 반드시 強調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高等學校와 大學에서 軍事學을 가르치고 있지만 分斷

국의 大部分이 軍事學을 가르치고 있다. 共產主義의 위협하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愛國 思想과 國防思想이 要求된다.

5) 우리의 政治敎育은 경제 발전과 淸치발전, 사회발전에 장애가 되는 非民主的, 非生産的 폐습의 改善을 強調해야 한다. 勿論 우리의 美風良俗과 傳統은 보호되고 發展될 수 있도록 아울러 強調해야 한다.

6) 國家發展을 위한 國民의 使命感을 鼓吹하고 국가 장래에 대한 비전이 정치敎育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7) 정치敎育은 우리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인접 외국과 그리고 우리와 反對되는 政治體制에 對한 批判도 아울러 強調하도록 해야한다.

8) 정치敎育의 체계화를 위한 理念, 目標, 內容의 定立과 이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해 행정 체계, 교과 행정 체계 등 제반 措置가 이루어 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 林漢永外數人, 比較教育, 서울: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1
- 柳炯鎮(譯), 比教教育学, 서울: 乙酉文化社, 1965
- _____, 美國教育和 蘇聯教育, 서울: 大韓教育聯合會, 1964
- 國土統一院, 中共總監, 1973
- 李奎浩, 教育和 政治, 서울: 培英社, 1971
- 朴容憲, 學校와 社會, 서울: 培英社, 1970
- 李 中, 教育和 社會, 서울: 培英社, 1970
- 李圭煥, 教育社會學原論, 서울: 中央教育出版社, 1962
- 白尙健, 政治學, 서울: 博英社, 1971
- U.S.D.H.E.W, Education in the USSR,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58.
- Vaizey, John, Education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1967.
- Kazamias, A.M. and Massialas, B.G., Tradition and Change in Education: A Comparative Study, N.Y.: Prentice-Hall, INC, 1965
- UNESCO, World Survey of Education, 1965.
- Massialas, B.G., Education and Political System, Massachusetts: Addison-Weley Publishing Company, 1969.
- Mallinson, V., Comparative Education, London; W.Heinemann Ltd., 1957.

Brubacher, J.S., A History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NY: McGraw-Hill Book Co., 1947.

서기 1973년 7월19일 100부 발간	
발간업체명 : 주식회사	26-0234~5
대표자 : 백 인	
인가 근거 : 내이 2066-5505 (1970.3.24)	
참 여 자	소 속 : 국토통일원 성 명 : 이 규 호

